

신학 석사학위 논문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

A Study of Rev. S. S. Song'
Antialcohol & Smoking Movement

2016년 8월

유 성 근

신학과

고신대학교 대학원

신학 석사학위 논문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

A Study of Rev. S. S. Song'
Antialcohol & Smoking Movement

지도교수 이상규

이 논문을 신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8월

유 성 근

신학과

고신대학교 대학원

유성근의 신학 석사학위 청구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심 사 위 원 장 황 대 우 ①인

심 사 위 원 이 상 규 ①인

심 사 위 원 신 경 규 ①인

고신대학교 대학원

목 차

| | |
|---|----|
| 1. 서 론 | 1 |
| 1.1 연구의 목적 | 1 |
| 1.2 연구의 내용 | 2 |
| 1.3 연구 방법 | 4 |
| 2. 송상석의 생애와 교육 | 6 |
| 2.1 송상석의 출생과 성장 | 6 |
| 2.2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한 송상석 | 7 |
| 3. 1920-30년대 한국교회적 상황과 금주·금연운동 | 11 |
| 3.1 한국사회와 교회적 상황 | 11 |
| 3.2 한국교회의 금주·금연운동 | 15 |
| 3.3 금주·금연운동의 조직적 전개 | 18 |
| 4. 금주금연운동의 전개 | 22 |
| 4.1 주마정벌 총사령부 | 22 |
| 4.1.1 주마정벌 행군 | 23 |
| 4.1.2 주마공판 | 24 |
| 4.2.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 기성동맹 | 26 |
| 4.3 조선기독교절제회 | 27 |
| 4.4 미성년자 음주·흡연금지법 시행 촉성회 | 28 |
| 5. 금주·금연운동과 입법 활동 | 32 |
| 5.1 법안의 내용 | 32 |
| 5.2 법안 제정의 당위성 | 34 |
| 5.3 미성년자 금주 금연법 제정의 경위 | 35 |
| 5.4 법령제정을 위한 활동 | 36 |
| 5.5 송상석과 미나미 지로의 만남 | 36 |
| 5.6 송상석의 입법 활동의 특징 | 39 |
| 5.7 법률제정 이후 | 40 |
| 5.8 법률제정에 대한 평가 | 41 |
| 6. 금주·금연운동의 성격과 특징 | 43 |
| 6.1 송상석의 신앙적, 신학적 배경 | 43 |

| | |
|----------------------------------|----|
| 6.2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특징 | 43 |
| 6.2.1 복음운동 | 44 |
| 6.2.1.1 금주·금연운동과 목회활동 | 46 |
| 6.2.1.2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성경적 근거 | 48 |
| 6.2.1.3 술에 대한 7난제 | 49 |
| 6.2.2 절제교육 | 51 |
| 6.2.2.1 성경적 절제교육 | 52 |
| 6.2.2.2 인물을 근거로 한 절제교육 | 53 |
| 6.2.2.3 과학을 근거로 한 절제교육 | 55 |
| 6.2.3 사회변혁운동 | 55 |
| 6.2.4 항일운동 | 56 |
| 7. 종합과 평가 | 57 |
| 7.1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위치 | 57 |
| 7.2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뚜렷한 소명 | 58 |
| 7.3 금주·금연운동에의 투신 | 59 |
| 7.4 해방이후의 금주·금연운동 | 60 |
| 7.5 금주·금연운동과 선교 | 61 |
| 8. 결 론 | 62 |
| 참고문헌 | 64 |
| 부록 1 | 66 |
| 부록 2 | 69 |
| 부록 3 | 71 |
| 부록 4 | 72 |
| 부록 5 | 74 |
| 부록 6 | 77 |
| 영문초록 | 78 |

감사의 글

가장 먼저 논문을 지도해 주신 이상규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교수님을 통하여 학문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기쁘다. 늘 웃으시면서도 예리하게 지적해주시는 교수님께 많은 것을 배웠다.

교회사 연구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형편으로 책을 덮은 지 오래 되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늦게나마 다시금 학업을 할 수 있었다. 역사학은 매력적인 학문이다.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도 하며, 왜곡을 바로 잡아주기도 한다. 그러기에 역사는 정직성을 요구한다. 물론 관점에 따라 서로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기에 더욱 객관성을 요구한다. “역사는 결코 반복되지 않는다, 단지 반복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인간의 본성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본 과정의 첫 수업 때 이상규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어떤 인물을 평가할 때 그 인물의 전 생애를 관찰함으로써 그 속에서 그 사람만의 역사를 발견한다. 그 역사는 참으로 오묘하다. 이것이 역사학이 내게 주는 매력이다.

본 논문을 쓰기 시작한지 4년의 세월이 지났다. 참으로 바빴다. 시간을 쪼개어 글을 써가야 했다. 글을 쓰다가 몇 개월의 공백이 생기면, 머리가 하얗게 되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글을 써야 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황대우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기독교강요 수업을 통하여 칼빈주의 신학을 일깨워주시고 내가 추구해야 할 신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해 주셨다. 신학적 난제에 대하여 질문 할 때면, 쉽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다.

신경규 교수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린다. 고신대학교 생활관에 근무하면서 4년 동안 생활관장으로 모셨었다. 그 기간 동안 교수님의 리더쉽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것은 실력과 정의 그리고 따뜻함이었다. 아울러 본 논문에도 좋은 지도를 해주셨다.

끝으로 가족들에게 감사드린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 유갑호 장로님과 김길희 권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김지아, 그리고 삼남매, 찬우, 현우, 지우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 특히 본 논문이 나오기를 인내로 기다려주신 나의 어머니 김길희 권사님께 본 논문을 헌정 한다.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1920-30년대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두 가지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것은 복음운동의 성격과 항일운동의 성격이다. 전자는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강조했던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조선교회의 금주·금연운동으로 확산된 것이고, 후자는 식민지배 하에 있던 조선민족의 독립욕구가 절제운동의 차원에서 금주·금연운동으로 확산된 것이다. 이 시기에 두 가지 성격을 아우르면서 적극적으로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했던 인물은 송상석(宋相錫, 1897-1978)이다. 그는 장로교회의 목사로서 금주·금연운동은 복음의 확산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했고, 일본 제국정부(이하 일제) 치하에서 억압받고 있는 조선의 청소년들을 주초의 억압에서 해방시키고자 노력했다. 송상석의 이러한 줄기찬 노력은 결실을 맺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석에 대한 평가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송상석 연구에 대한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송상석은 고신교단의 인물로서 고신교단 설립과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고신교단의 시발점이 되는 고려신학교 설립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박형룡을 고려신학교 초대 교장으로 추대하는데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¹⁾ 고려신학교를 반대한 이들이 고려신학교를 비난하기 시작했을 때 송상석은 변호자로 활동했다. 특히 박형룡이 고려신학교를 사임하고 상경하였을 때, 고려신학교와 ‘신성파’²⁾에 대한 비난은 심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대자들과 싸웠던 대표적인 논객이 송상석이다.³⁾ 그러나 해방이후 1951년부터 1970년까지 송상석은 교회재산과 관련된 소송 건에 휘말리게 된다. 총회파와 법통파로 나뉜 대립은 법정투쟁으로 이어졌다. 송상석은 박윤선과는 달리 송사정당론을 주창했다.⁴⁾ 송상석은 교회재산은 ‘교회총유의 것’이라고 확신했다.⁵⁾ 박윤선의

1)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SFC, 2006), 144.

2) 고려신학교를 반대하던 사람들이 주장하는 논리이다. 즉, 한상동을 비롯한 고려신학교의 설립자들이 자신들은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신성하게 여긴다고 주장하는 논리이다. 그리고 이들은 고려파 인사들을 ‘신성파(神聖派)’라고 불렀다. 이들은 “고려신학교와 소위 신성파에 대하여”라는 문서를 발표하바 있다.

3)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145.

4) 신재철, 『불의한 자 앞에서 소송하느냐』(쿰란출판사, 2014), 152.

5) 송상석의 입장은 지지를 받았고, 그의 이론은 대법원 판례에도 영향을 주어 최근까지 교회 재산권 분규의 판례가 되어왔다.

철수이후 송상석과 한상동은 지도력의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 긴장은 1969년 이후 이사장과 고신교수들, 경남노회와 부산노회 등 대립적 구도로 도식화 되었고, 1973년 이사장직과 관련하여 경남노회에 배경을 둔 송상석은 한상동 중심의 부산노회와 대립하여 고발당했고, 결국 송상석은 1974년 12월4일 총회 특별재판국에 의해 면직처분으로 종결된다.⁶⁾ 이러한 일련이 과정으로 인해 해방이전 송상석의 금주·금연의 의미 깊은 사회운동에 대한 업적은 무시되거나 경시되어왔다. 해방이전 그가 분투했던 금주·금연운동은 한국교회사와 민족운동사에 있어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송상석은 1920년대와 1930년대 한국사회의 사회개량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금주·금연운동을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인물이었다. 그의 금주·금연운동의 결과물은 한국교회사와 한국역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본고는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그의 교회사적 위치를 평가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의 내용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이 복음운동이라는 것은 민족주의 기독교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복음운동은 민족을 초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운동이기 때문이다. 민경배는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한국에 있는 중·상층이 민중의 비극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민족운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⁷⁾ 또한 가난하고 절망에 빠진 민중의 삶에는 성실과 희망 그리고 책임을 가지게 하는 거대한 민족양심운동이며, 구습악폐를 근본적으로 개조해서 성실한 삶과 신성한 의무 그리고 상항을 극복하는 희망과 의지를 갖춘 민족사를 형성해 나가려는 획기적인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다.⁸⁾ 그리고 이러한 것은 기독교가 내적인 동기가 된 역동성에서만 가능한 운동이라고 보고 있다.⁹⁾ 그의 견해는 민족주의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금주·금연운동의 핵심은 민족운동이었고 이 민족운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음의 보편성과 초월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6)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154.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8회 총회회록』(고신총회, 2008), 1082. 송상석 목사는 1974년 12월 4일 목사면직 되었고, 마산노회장 황삼수 목사가 청원한 고 송상석 목사 사면 청원 건이 총회의 허락으로 가결되었다. 이 청원은 마산노회 객삼찬 목사가 발의했고, 노회가 이를 결의하여 총회에 상정했다.

7)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393-394.

8)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394.

9)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393-394.

교 신앙은 민족주의 이상의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금주·금연운동은 특정 민족에게만 국한될 수는 없다. 절제(節制)는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민족을 초월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일제의 탄압 속에서 형성되었기에 기독교 민족주의의 성격이 강한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금주·금연운동에 있어서 민경배가 말하는 것처럼 중·상층이 민중의 비극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는 민족운동이라고 정의한 것은 모순이다. 이는 그가 기독교 금주·금연운동과 민족운동을 동일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금주·금연운동과 민족운동은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금주·금연운동이 민족운동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금주·금연운동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보편성을 지니고 있으나, 민족운동은 한국민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한국교회사적으로 볼 때 금주·금연운동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본다. 이는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이 민족운동의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복음운동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민족운동이라는 옷을 입고 있는 복음운동이라는 의미이다. 즉, 민족운동이 객(客)이고 복음운동이 주(主)가 된다.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복음운동의 산물이지만 민족운동의 산물은 아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초월성과 보편성을 지닌 복음운동이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1920년대에는 다양한 항일운동이 전개되고 있었다. 1920년 7월 20일 평양에서 조만식을 중심으로 조선물산장려회 발기인대회를 가짐으로 항일운동은 구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26년에 일어난 6.10 만세 운동은 일제의 수탈 정책과 교육 정책에 대하여 반발하였으며,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은 일제의 민족 차별과 식민지 교육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상기 운동들은 주로 단회적이었다. 그러나 금주·금연운동은 1938년까지 꾸준히 전개되었던 항일운동이었다. 그 이유는 일제는 중독성 물질을 조선 사람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또한 과도한 과세로 인한 수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항하는 것은 분명한 항일운동이었다.

본고는 한국교회사적으로는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분명한 복음운동이었으며, 한국사적으로는 항일운동이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1.3 연구 방법

송상석의 활동에 대한 최초의 연구는 이상규의 『한상동과 그의 시대』에 포함되어있다. 그는 송상석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을 말하면서 “송상석 목사는 상대적으로 경한 대접을 받아왔다.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기 마련이지만 송상석 목사가 고신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합당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¹⁰⁾고 지적한다. 송상석에 대한 연구가 부진했던 것은 송상석에 대한 상대적 무시라고 이상규는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금주·금연운동의 선봉에 섰던 업적조차도 묻혀버렸다.

송상석은 귀중한 사료집을 남겼다. 그것은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성광문화사, 1979)이다. 이 문서에는 괄목할만한 역사적인 자료들이 수합되어있다. 특히 일본 동경에서 출간된 「절제신문」은 가치 있는 자료가 된다. 송상석의 주요 활동 시기는 1920-30년대이며, 이때가 한국에서 일어난 금주·금연운동의 최 고조기였다. 이 시기에 있었던 다양한 금주·금연운동의 성격을 고찰해 보는 것은 유익하다. 왜 이 시기에 금주·금연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는지에 대한 고찰은 본고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된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송상석은 목사로서 금주·금연운동을 복음운동의 관점에서 전개했다. 따라서 송상석의 신앙적, 신학적 배경을 고찰 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의 금주·금연운동의 성격을 고찰한 후, 이어서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이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할 것이다.

금주·금연운동은 금주·금연에 대한 한국교회의 인식과 관심 속에서 일어났던 운동으로 점차 조직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송상석은 1925년 이후 1938년까지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했다. 본고는 송상석의 활동과 입법, 그리고 절제교육의 순으로 전개할 것이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에 관해서는 송상석 편저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과 각종 신문자료를 중심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사학자들의 평가에 관련된 저술들이 2차 자료로 활용되었다. 이 자료들을 통하여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특징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송상석의 기여와 업적에 대해 평가했다. 이는 향후 송상석 연구의 기초를 놓기 위함이다.

용어에 대한 일관성을 위해서 몇 가지를 기준을 정했다. 먼저 고유명사에 대하여

10)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138-139.

는 뛰어 쓰기를 생략했다. 가령 ‘조선 기독교 절제 운동회’를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로 사용했다. 그리고 고유명사가 서로 다른 것들은 통일성을 위해 획일화 했다. 가령,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는 ‘조선기독교절제회’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은 ‘미성년자금주·금연법’으로, ‘금주단연운동’은 ‘금주·금연운동’으로 등이 그 일예다. 인용구를 인용 할 때는 원본대로 표기했다. 그리고 주로 신문자료나 잡지에 게재 된 기사는 원문을 현재 통용되고 있는 한글과 한자로 혼용하여 사용했다.

2. 송상석의 생애와 교육

2.1 출생과 성장

송상석(1897-1978)은 1897년 12월 20일 마산에서 미곡상을 하는 송국필과 손일남의 아들로 출생하였으나 일곱 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편모슬하에서 성장했다. 집에서 한문을 공부하던 그는 1910년 마산 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마산간이농업학교에 진학하여 1916년에 학교를 졸업했다. 서울로 유학한 그는 현재 고려대학교가 된 보성학교 법과에 진학 하였으나 가정형편상 학업을 중단하고 귀향했다. 양산 통도사에 입산하여 불도에 빠지기도 하였고, 경찰에 투신 하는 등 방황의 날들을 보냈다. 그러던 중 23세가 되던 1920년에는 통영군 언량면 옥지도의 사립 원량(遠梁)학교 교원으로 부임하여 일하던 중, 학교 옆 옥지교회의 영수인 강사영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했다. 신자가 된 그는 곧 바로 술과 담배를 끊고 절제를 실천했다. 그 후 통영의 호주 선교부가 운영하던 진명학교로 옮겨 일하면서 동료교사였던 김난출(金蘭出, 1903-1983)과 결혼했다. 이때가 1924년 이었다.¹¹⁾

결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송상석의 생애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그것은 친일행각에 대한 동아일보의 기사로 인한 것이다. 기사의 내용은 송상석이 예전에 일본형사로 있었으며, 민족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 대하여 박해를 가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이는 통영에서 일어난 ‘조일정, 진후근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 송상석은 형사직을 사임하게 된다. ‘조일정, 진후근사건’의 전말에 대한 내용은 사료가 없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를 알 수 없지만, 기사의 내용을 보자면, 송상석이 민족의 복리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박해를 가한 사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를 자세히 보면 그가 회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형사직을 사임한 후 신앙을 가졌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지역민들의 정서는 송상석을 포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송상석은 동아일보 기사이후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하게 것으로 보인다.¹²⁾

11)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139.

12) 「동아일보」 1717호(1925.5.11.).

형사로 목사, 교원 사회측 여론 비등.

동아일보, 1925. 5. 11. 기사(뉴스).

일반에 악감을 샀던 예전의 형사로서 대번에 목사와 교원이 되어 문제,

기사에 따르면 송상석은 1925년 3월에 목사가 된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이점은 오기임이 분명하다. 그는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1934년 3월에 목사안수를 받게 되기 때문이다.¹³⁾ 그는 부산의 양성봉(梁聖奉, 1900-1963), 마산의 이영한등과 교분을 나누며 청년운동에 참여했다.¹⁴⁾ 그리고 청년운동에 참여하면서 금주·금연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그가 금주·금연운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동기는 물론 그의 개종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동기는 동아일보의 기사 때문이었다. 이로 인해 송상석은 자신의 고향을 등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던 중 그는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한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속죄의 행동이었을 수도 있다. 당시의 금주·금연운동은 사회계몽과 사회혁신, 문화운동으로 이해되었고, 금주·금연운동은 사회적인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2.2 금주·금연운동의 투신

송상석은 1920년경 개종하였고, 그로부터 5년 뒤인 1925년에 본격적으로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했다. 1925년 송상석은 종로중앙교회의 감리교 목사이자 33인의 민족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던 김창준(金昌俊, 1890-1959)을 찾아가서 자신이 금주·금연운동에 투신 할 것을 요청했다. 김창준은 이를 받아들였고, 송상석은 김창준의 후원으로 금주·금연 운동을 시작했다.¹⁵⁾ 그는 곧 ‘조선금주운동단’의 본부장이 되어 1927

경찰이 간섭하는 통영 진명교 문제,

경남 통영군에서는 요사이 일반 사회 측과 장로교회 사이에 장로교회 경영인 진명(進明) 여학원의 교사 송상석의 문제로 인해 적지 않은 충돌이 생겼다는데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건대 전에 송상석은 과거 일본 경찰서 형사로 있을 때부터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행위를 해 민족의 복리를 위해 일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더욱이 가진 박해를 가하던 사람으로 이미 그 당시 일부 세상에서 비평이 많았던 통영 조일정(朝日町), 진후근(陳厚根) 사건 등이 있었던 바, 그 후로 형사의 직을 사임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얼마 있다가 세례를 받고 금년 삼월에 목사까지 되어 차츰 시간이 지나 진명학교 교원이 되었으나 일반 사회 측에서도 도저히 그런 선생에게 자녀의 교원을 부탁할 수 없다는 여러 번의 교회 측에도 교섭이 있다가 지난 삼일에는 박세홍(朴世洪), 진평헌(陳平軒), 김상현(金相顯) 등 3명이 직접 담판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이튿날에 이르러 과거 3명의 사람은 경찰서와 검사국에 호출을 당해 취조를 받는 등 자못 군내의 공기(상황)가 긴장해 장차 일대 충돌이 있을 모양이라고 추측된다.

1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성광문화사, 1979), 531.

14) 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SFC, 2006), 138.

15) 1938년 4월 4일, 김창준은 송상석과 함께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를 방문하고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제정하는데 재가해 준데 대한 감사의 사례를 한다. 이는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배경에는 김창준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년 황주에서 조직된 ‘주마정벌총사령부(酒魔征伐總司令部)’의 총사령관이 되었다.¹⁶⁾ 그 후 1929년 4월 미성년자 금주·금연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졌다. 그 동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은 죄악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는 종을 삼으시기 위한 것임을 각오한 동시에 일만 죄악을 비저 내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는 주마와 연독을 인류사회에서 배제하는 운동에 힘써야겠다는 것이 나에게 준 사명감이었습니다.¹⁷⁾

이러한 동기로 송상석은 시골에서 훈장 일을 보던 것을 그만두고 집을 팔아 상경했다. 서울에 올라온 후 송상석은 여러 가지 난간에 봉착하게 된다. 몇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그것은 금주·금연운동을 함에 있어서 자금의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이는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음모였다. 이것은 송상석에게 적잖은 시련이었다. 또한 그는 사업실패로 인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는 송상석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련이 되었다. 의기투합했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그러나 송상석은 굴하지 않고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운동’에 상당한 노력을 하였으나, 결정적인 이유로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운동’을 추진하던 그룹은 해체 되고 말았다. 이 그룹이 해체된 결정적인 이유는 1930년 5월 26일 본 법안을 위해 사이토 마코토(齋藤 實, 1858-1936) 총독과의 면담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일로 사이토 마코토 총독과의 면담이 결렬되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이 백지화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되자 1930년 5월30일 송상석은 다실 일어설 각오로 왼손 무명지를 끊는 단지혈맹을 함으로 동료들을 격려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석은 동료들과 결별을 해야만 했다. 설상가상으로 송상석은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 가족들이 심각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었다. 송상석은 서울을 등지고 황해도 황주로 이주하여 교회 일을 보면서 동리지, 동회형의 도움으로 평양신학교에서 수학을 하면서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운동’을 계속했다. 그러던 중 평양신학교 교수였던 곽안련(郭安連, Charles Allen Clark, 1878-1961) 박사의 후원으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조성이 되

16) 이 때의 표어는 다음과 같다. 1. 조선의 구원은 금주에 있다. 2. 술(酒)은 악마의 흥기이다. 3. 교육과 산업과 경제는 금주운동으로 구조한다. 4. 조선교회는 금주의 성지이다. 이 표어대로 실천하기 위하여 주마돌격대(돌격대장:송상석)를 결성했다.

1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530.

어 금주·금연운동을 계속할 수 있었다. 1931년 송상석은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수학한 후 1934년 제29회로 졸업하고 교회를 담임 하면서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실시를 위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¹⁸⁾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한 송상석은 1932년 5월,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주최한 현상논문에서 1등으로 입상하여 상금 10원을 수상하기도 했다.¹⁹⁾ 평양신학교 재학 중 금주 강연대회에서는 2등을 하였고, 1932년 5월에는 평양신학교에서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를 조직하고 조만식, 채필근을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총무가 되었다. 이듬해 1933년 「절제시보」를 창간하고 주간으로 활동했다.²⁰⁾ 송상석은 1929년에 시작하여 1930년에 해체된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운동’을 다시 재개(再開)했다. 그는 1935년 12월 16일에 결성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통하여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발의하고, 이 법안을 제정해 줄 것을 일본정부에 공식으로 요구했다. 이어서 송상석은 일본의 금주·금연동맹과 교류함으로써 그들의 호응을 얻어내었다. 그 결과로 송상석은 그들에게 정식으로 초대되어 조선에서의 ‘미성년자 음주·흡연금지법’에 대한 타당성을 호소하게 되었다. 송상석은 여러 방면에서 본 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결국 일본의회에 상정할 기회를 얻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마지막 난관이 있었다. 그것은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²¹⁾의 결재였다. 송상석은 본 법안 승인을 얻기 위해 수차례 총독과 접촉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했다. 그러나 결국 총독의 자료요청이 있었고, 송상석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마침내 총독의 승인을 얻어내었다. 이것으로 인해 1938년 3월 18일 ‘미성년자금주·금연법안’이 드디어 각의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정부는 1938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칙령 145호로 공포한다.

그러나 곧 일제는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선포했으며, 어려운 과정 속에 통과된 ‘미성년자금주·금연법안’은 점차 무용지물이 되어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일본의회에 통과 된 것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괄목한 만한 것이었다. 그 후

18)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1.

19)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395.

20)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

21) 미나미 지로는 제7대 조선총독으로서 1936년 8월 5일에서 1942년 5월 28일까지 조선을 통치했다. 그는 조선 총독들 중 가장 노골적으로 절대 권력을 행사한 인물이다. 그는 조선에 철저한 황민화 정책을 추구하였고, 신사참배 강요, 창씨개명실시, 황국신민의 선서, 매일 궁성요배, 일본국기 게양, 일본국가 제창 등을 강요했다. 무엇보다도, 내선일체(內鮮一體)를 강요하여 조선인들에게 “내선일체의 마지막은 무차별적인 평등에 있다”고 말했다. 다테노 아키라(오정환, 이정환 공역), 『그때 그 일본인들』(도서출판 한길사, 2006), 185-189.

송상석은 일본의 전시체제동원령으로 인해 은둔생활에 들어갔다. 1945년 해방을 맞게 되고, 남하하여서 기왕의 친구인 이약신과 교류하며 경남지방 교회재건운동에 가담하게 된다. 이런 과정에서 경남법통노회 중심인물로 자리하면서 고려신학교 설립 과정에도 기여하게 된다. 송상석은 이후 고려신학교 설립일에 참석하면서 고려신학교와도 협력하게 된다. 그러나 그는 한국전쟁 이후 교회 재산권분쟁소송에 휘말리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시련을 겪게 된다.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직 수행과 관련된 목사면직이었다. 1978년 송상석은 다시 금 절제회를 재조직하였으나, 그 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3. 1920-30년대 한국교회 상황과 금주·금연운동

3.1 한국사회와 교회적 상황

3.1 독립운동 이후 한국사회는 격변기를 맞게 된다.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조선총독부는 소위 문화정치를 시작한다. 이 시기 사회적 변화가 나타난다. 그 하나의 실례를 보면, 1915년 한국에는 자동차가 5대 밖에 없었으나, 1929년에는 2천여 대의 미제 쉬보레 자동차가 수입되어 택시로 운행되고 있었다. 도로와 철도는 확장되고, 심지어 비행기도 중국의 대련(大連)과 일본 오사카에 매일 취항하기 시작했다. 평양은 한국의 맨체스터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이러한 외형적 변화가 사람들의 내면적인 변화도 가져오게 했다. 사회주의와 무신론, 불가지론(不可知論, agnosticism)과 아나키즘(anarchism), 에로티시즘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버스 차장으로부터 시작한 여성의 사회적 등장은 여권의 신장이라는 관념보다는 전통이탈의 기회이기도 했다. 활동사진관, 흥등가, 사롱, 카페와 같은 오락기관의 번성은 젊은이들의 정신적 유량을 더욱 촉진 시켰다. 총독부 전매에 의한 아편과 중독제의 보급은 기독교인들까지 유혹하고 있었다. 여기에 대하여 주류소비의 급격한 증가로 사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겪게 되었다.²²⁾

이와 같은 격변기 속에서 기독교는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내적으로는 신자들의 비성경적인 관습과 인습이었고, 외적으로는 일제의 극우세력들에 의한 식민통치와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이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난간을 극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일제는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여 한국 국민들의 재산을 수탈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도한 주류세 부과였다. 이는 한국민들의 술 소비량이 상당했기 때문이다.

이 시기의 한국교회는 한국사회의 문화변화와 함께 대격변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1920년대 기독교인의 인구는 2%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변화하고 있었다. 교회가 암울한 시대를 극복하고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점은 찬송가에서도 잘 나타나있다. 1930년에 나온 찬송가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와 1931년에 나온 찬송가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찬송가를 통하여 교회는 새로운 시대를

22)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264-267.

개척해 나가며, 또한 새로운 시대를 주도해 나가기를 원했다. 먼저 교회는 예배당 안에 남녀 석을 갈라놓던 휘장을 없앴다. 그리고 교인들의 상투도 없어졌고, 예배당의 마루 바닥에는 의자가 들어왔다.²³⁾

변화하는 한국교회에 심각한 위기중 하나는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이었다. 한국교회에 사회주의 사상이 유입된 것은 1920년대부터이다. 1922년 블라디보스톡이 소비에트 노농(勞農)정부의 적군(赤軍)에 의해 점령된 후, 일본제국정부가 소련을 승인하였다. 이어서 만주나 시베리아 및 일본에 있던 한인 사회주의자들이 국내에 귀국하면서 대대적인 활동을 벌이고 기왕(既往)의 국내조직과 연결하면서 반기독교운동에 나서게 된 것이다. 사회주의의 침투는 한국민족이 절박함에 밀려 어떤 탈출구를 찾고 있을 때 손길을 뻗힌 것이다. 그러기에 사회주의 사상은 청년들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그러나 이들의 타도 대상은 일본제국정부가 아닌 자본가, 브루조아, 미제, 그리고 기독교였다. 이것은 기독교의 위기였다. 청년사회주의동맹이나, 무신론자동맹들은 기독교를 대적했다. 이들의 활동은 강력했다. 사회주의의 국내 유입로는 주로 경찰의 검열에서 제외된 선교사들의 국제 우편물 탁송의 형식을 취하여 이루어졌다.²⁴⁾

한국에서의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자본주의 미국과 연결되어 있으며, 부르조아 상류층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류층에게는 희망을 주지 못한다고 외쳤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 기독교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와 공통점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사회주의를 배격했다. 그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언더우드의 영향을 받은 새문안교회 장로였던 김규식은 1922년 소련 페트로그라드에서 개최된 ‘극동피압박민족 제1차 대회’에 여운형과 함께 ‘조선기독교도연맹’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동질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이들은 실망하고 귀국했다. 사회주의는 처음부터 반제 반자본주의운동과 함께 반기독교의 공세를 펼쳐왔다. 1920년 이동휘계의 사회주의자 박진순은 제2차 코민테른 회의에서 “기독교 강세의 조선을 사회주의 혁명 성취의 오아시스로 바꾼다.”는 연설을 했다.²⁵⁾ 사회주의자들은 북한 지방에서 교직자들을 구타하고 살상하였고, 만주에서는 감리교 목사가 일제 관헌과 연락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그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다. 이러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25년부터이다. 1925년 9월 만주의 찌린에서는 동

23)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277.

24)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280.

25)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286-287.

아기독교 파송의 윤학영, 김이주, 박문기 등이 공산당원에게 순교당했다.²⁶⁾

사회주의자들은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와 자조능력을 마비시키며, 자본가들을 옹호하며, 미신적이며, 인간성을 부인하고 있으며, 일제와 한국의 지배 상류층을 옹호하고 있으며,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이며, 시대역행적이며, 일제와 동조한다고 하면서 기독교 타파를 외치고 있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일각에서는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묘하게 감돌고 있었던 것을 사실이었다.

사회주의로 인해 나라의 분위기가 어수선했을 즈음 일본은 조선을 본격적으로 식민지화하기 시작했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경제적인 수탈이었다. 일본이 취한 경제수탈의 방식은 주로 조선에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외자유치인 셈이다. 일본의 자본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발생하는 이윤을 본국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에 일본 자국기업에 상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또한 상당한 세율을 적용시켜 과세함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역시 본국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주류산업의 양성화이다. 조선 사람들은 주로 자가 양조를 하여 음주를 즐겼다. 그러나 일본의 식민 통치가 이루어지자 일본은 자가 양조를 금지하고 주조는 오직 허가된 양조회사에서만 하도록 법을 제정하였고, 여기에 과도한 주세를 적용시켜 조선인들의 자본을 수탈했다.

구한말 조선사회의 술 소비량은 상당했다. 조선총독부는 식민지를 시작할 무렵부터 주조업을 중요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는 조선의 주류 소비량이 막대한데 비하여 주세가 부과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식민통치를 하는 일본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920년대에는 주류생산이 전체 공산품의 17%를 점했다.²⁸⁾

주조업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은 주류에 대한 고율의 세금을 부과했다. 주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 했다. 1910년의 전체조사에서 1.8%에 불과하던 것이 1927년에는 25.9%, 1934년에는 29.5%를 점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²⁹⁾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자가 양조를 법으로 금지하고, 주조장에서만 제조하도록 한 ‘주조장 집약정책’을 강행한 결과였다. 일제는 조선인들의 음주를 부추겼다. 1909년에는 신삼세(新三稅)를 본격적으로

26)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대한기독교 침례회, 1964), 43-44.

27)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288.

28) 이승연, “1905년-1930년대 초 주조업 정책과 조선 주조업의 전개”, 『한국사론』 32(1994. 12), 69.

29) 『한국사론』 32(1994. 12), 70.

과세하기 시작했다. 신삼세는 주세(酒稅), 연초세(煙草稅), 가옥세(家屋稅)이다. 조선인들은 과도한 주세 납부에 시달리다 못해 밀조(密造)를 하게 되었다. 일본은 즉시 밀조자들을 검거하기 시작했다. 그 검거건수가 상당한 비율로 증가했다. 1927년 주세령의 개정으로 세율이 인상되자 탁주의 밀주가 격증하게 되었는데, 그 검거건수가 1927년 10,624건, 1930년 13,991건, 1932년 16,715건, 1933년 18,140건이었다. 일본의 주세 징수는 사회적인 불만을 사게 하였는데, 심지어는 3.1운동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일본은 3.1운동 직후 주세 인상을 낮추어 주기도 했다.³⁰⁾

일본의 이러한 식민정책을 방어하기 위하여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조직적인 운동을 펼쳐 나갔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이었다. 식민지 조선은 독립을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중요한 것인 바로 자본 유출의 억제이다. 자본의 유출 억제는 상대적으로 국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 지도자들은 금주·금연운동을 펼쳐나갔다. 조선인들은 유난히 술을 좋아했다. 물론 외국의 사례와 견주어 볼 때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식민통치라는 암울한 사회에서 술은 매우 좋은 도피처였다. 그러나 술은 국민들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갔다. 이에 선각자들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술과 싸움을 하지 안 되었다. 자연스럽게 술에 대한 절제는 민족운동으로 변져나간 것이다.

무절제한 주초문제는 여러 가지로 사회에 대한 역기능적인 사건도 많이 발생시켰다. 특히 음주로 인한 강력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일례로 1935년 10월 17일 동아일보에 보도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실에 쪼들리는 고식적 위안을 술잔 속에 구하려다 폭음 후에 광태와 성문제를 싸고 유쾌, 질투, 칼부림 등 어지러운 난무가 이곳저곳에서 선혈의 살인 참극을 끊임없이 연출하고 있는 최근의 사회상은 심히 한심한 바 있다.

부내 신정 265번지 정년이(鄭年伊)의 집 앞 거리에서는 부외 내단동 1031번지 이유락과 동동 이기하(26) 두 명은 취중에 사소한 일로 말다툼이 시작되어 극도로 흥분된 나머지 이유락은 정년이의 집에 뛰어 들어가 식도(食刀)를 들로 나와 이기하의 상복부를 찔러 현장에 넘어뜨렸

30) 「한국사론」 32(1994. 12), 123-127.

는데 상처로부터 창자가 노출하여 생명이 위독하다고 한다.

성주군 성주면 용산동 666번지 김덕영(金德永)과 동군 벽진면 시사동 이맹하(李孟夏)는 전기 용산 동 조해봉의 방에서 9일 오후 5시경에 술을 먹다가 취중에 싸움이 일어나서 서로 따리고 차고 하던 끝에 김덕영은 이맹하에게 심히 채인 것이 원인으로 심히 신음하다가 12일 오전 10시경에 드디어 사망하였다고 한다.

상주군 회남면 평리동 김일권은 의성군 단북면 노면동 김야성이란 여자가 자기 안해를 유인하였다는 사실로 지난 7월 오후 5시경 노연봉 음식점 김한갑의 집에서 말다툼이 시작되어 원한에 격분한 김일권은 죽저를 들어 김야성의 등을 찌른 것이 우폐 동맥을 관통해서 현장에서 즉사하였다는데 전기 세 명은 모두 각 관계 경찰서에서 엄중한 취조를 받고 있다고 한다.³¹⁾

일제 강점기 동안 신문 기사들은 이러한 종류의 다양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음주의 폐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말하여 준다. 이러한 사회현상은 자연스럽게 금주·금연운동으로 번져나갔다. 이 시기의 금주·금연운동은 거의 한국교회가 담당했다. 따라서 1920-30년대 한국교회의 금주·금연운동이 곧 한국사회의 절제운동이었다.

3.2 한국교회의 금주·금연운동

한국교회 초기에는 술과 담배에 대하여 부정적이지 않았다.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함께 술을 마신 예도 있었다고 한다. 예수님의 생일에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신자들이 예배당에 올 때 신발장 옆에 담뱃대를 정열해 두었다가 예배가 폐하면 각자 자기 담뱃대를 들고 예배당 뜰에서 담배를 피우기도 했다고 한다. 당시로서 술과 담배는 함께 즐기는 여흥이었다.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 원두우, 元杜尤, 1859-1916)는 한때 흡연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화란 개혁파 계통의 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주초문제에 대하여 자유로운 편이었다.³²⁾

3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311-312.
「동아일보」 1935. 10. 17.

초기 내한 한 복장로교회 선교사들은 회합에서 술을 마셨다. 이들은 음주·흡연문제는 임페라티브한 디아포라(diaphora)아니라 아디아포라(adiaphora)의 문제, 곧 ‘불간섭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그래서 초기 선교사들은 일정기간 음주나 흡연문제에 있어서 관망한 것으로 보인다.³²⁾

그러나 1890년대 초부터는 선교사들이 조선에서는 술과 담배가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자연스럽게 금주와 금연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어떤 서양인들은 한국의 음주문화를 살인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선교사들이 입국한지 약 10년이 지나서부터 금주·금연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감리교는 1894년부터 금주정책을 펼쳐 금주를 교회의 공식 입장으로 결의하기 시작하면서 금주·금연에 대한 인식이 한국교회 안에 퍼져나갔다.³⁴⁾

산업혁명과 계몽주의는 사회를 대량화, 대중화로 변화시켰다. 통신의 발달역시 그 한 몫을 했다. 그와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중독에 대한 것이었다. 약물중독, 흡연중독, 도박중독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하여 영국과 미국에서는 금주운동이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어 많은 금주회들이 조직되었고, 20세기 초에는 금주법이 국법으로 제정되어 전 국민의 금주를 강요한 때도 있었다. 영국의 경우 1915년 세계대전 당시 영국정부는 주류업중앙 취체국을 신설하여 주류 판매장소와 주류에 알콜 함유량 등을 제한했다. 프랑스 역시 1917년 미성년자 금주법을 제정했다.

한국에서는 구한말부터 한일합방의 기간 동안 외래문화가 들어오면서 아울러 향락문화도 들어왔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한국 사회는 반상제의 흔적으로 축첩, 음주, 흡연 등의 문화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이며, 향락문화의 대명사로 불리는 것은 단연 주초문제였다. 따라서 절제운동의 핵심역시 주초문제에 관한 것이다. 한국 기독교 선교초기에 선교사들이 금지한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은 술, 담배, 아편이었다. 선교사들이 볼 때 이것은 패가망신시키는 도구이며, 국가의 재정을 낭비하는 것이었다. 청교도의 열정을 가지고 내한한 선교사들은 이것들을 금지 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이것들을 권고한 선교사들의 글에는 ‘성경’을 근거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심신의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 기강 및 개화와 관련하여 의견을 개진한 것이었다. 특히 술에 대하여는 ‘개화를 크게 해하는 물

32)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생명의 양식, 2007), 165.

33)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165.

34) 이상규, 『한국교회사의 뒤편길』(킹덤북스, 2015), 94-97.

건'이라고까지 했다.

한국초기의 선교는 사회개혁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특히 선교대상은 민중층, 즉 사회 하류층과 부녀 층에 집중되었다. 민중층의 특징은 지식층과는 달리 이성적이지 않았다. 지극히 감성적이며, 영혼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정서의 골이 깊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이들의 이성을 깨고, 이들을 시민계급인 중류층으로 끌어 올리는 데 주력하였고, 이러한 선교사들의 역할이 한국의 토착민 지도자들을 배출했다. 한국 초기 기독교가 근대적인 교육과 문화운동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의 미풍을 크게 해치고 있던 술, 담배, 아편을 금지시켰으며, 형식화 되고 변잡스럽게 된 혼례, 장례 등을 점차 개선해 갔으며, 인간 평등론에 입각하여 신분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노력하였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하고 여성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권리를 신장 시키는데 공헌했다. 특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한글의 재발견이다. 1870년대 말과 1880년대 초에 시작된 만주와 일본에서의 성경의 한글판 번역은 한글판 성경 보급에 크게 공헌했다. 그리고 1893년에 한국장로교는 10가지의 선교정책을 채택하였는데, 그 중 모든 문서는 한글로 기재한다는 정책이 채택되면서 기독교의 대중화를 확대시켰다.³⁵⁾ 한국에 선교사들이 입국한 이래로 한국의 금주·금연운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다. 북장로회 선교부는 1919년부터 사회복지 상임위원회를 두어 마약, 음주, 기타 사회악에 대항해온 운동체들을 집결시키고 있었다.³⁶⁾

이러한 기초아래 한국의 금주·금연운동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되고 있었다. YMCA는 각 지방 YMCA를 중심으로 금주동맹이나 금연회를 조직했다. 1923년 감리교회도 산하 각 지방에 금주회를 조직했고, 1930년에는 각 연회에 절제부를 두어 이 운동을 총괄했다. 1930년에 공포된 감리교회 사회신경에는 “심신을 패망하게 하는 주초와 아편의 제조, 판매, 사용금지”조항이 삽입되었고, 감리교인 임배세(林培世, 1900-?)가 작사한 절제계몽가인 “금주가”가 1931년 간행의 『신정찬송가』에 포함되었다.³⁷⁾ 면려 청년회 조선연합회에서는 1930년 5월 4-5일을 “조선의 금주선전일”로 정하여 전국 교회의 호응 속에 전국적으로 금주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³⁸⁾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기독교 금주·금연운동과 민족주의 금주·금연운동의

35)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지식산업사, 1992), 15.

36)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394.

37)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275.

38) “면려청년회 금주운동”, 『기독신보』 1930. 4. 16.

융합형태인 기독교민족주의 금주·금연운동이었다. 금주·금연운동은 조선인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 초기의 금주·금연운동은 비조직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점점 조직적인 형태를 띠게 되었다. 1910년 한일합방 직후 일제는 외국상사에게 담배의 수입을 허가하는 한편, 그 광고 또한 무제한으로 허용했다.³⁹⁾ 이에 앞서 1907년 대구를 중심으로 일어난 국채보상운동의 중요한 슬로건이 금연이었음으로 볼 때, 일제의 흡연 장려는 민족운동을 일으키게 한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 일제가 거두어들인 신삼세(新三稅) 중 하나인 연초세(煙草稅) 역시 막대한 세수(稅收)였다.

금주·금연운동의 배경에는 민족주의자들이 추진한 실력양성운동의 측면이 있다. 실력양성운동은 자연스럽게 금주·금연운동이 민족운동의 성격을 띠게 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지니고 있었다. 일제는 이러한 금주·금연운동에 대하여 경계했다. 그리고 적잖은 제재를 가했다. 그러던 중 1937년 5월 면려청년회가 절제금주운동을 위해 각 지회에 발송한 문서 속에 “멸망에 빠진 민족을 구출하는 기독교인의 역할”이라는 글귀가 있었는데, 일제는 이것을 보안법 위반이라고 해서 면려청년회 조선연합회의 서기 이양섭을 검거했다. 또 그해 8월 선천에서 면려청년회 평북연합회와 YMCA 인사들이 금주·금연운동에서 불온문서와 불온노래를 인쇄 발표하였다고 해서 강신명과 주덕균등 6명이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혐의로 일제에 검거되기도 했다.⁴⁰⁾

3.3 금주·금연운동의 조직적 전개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1910년대 초 구세군에 의해 적극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 1910년 10월부터 매년 1회 「구세신문」에 ‘금주호’를 발행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계몽운동을 펴기 시작했다.⁴¹⁾

구세신문의 ‘금주호’ 발행으로부터 시작하여 금주·금연운동은 점점 조직적인 성격으로 그 모양새를 갖추어가기 시작하여 1910년대 말부터는 조직적 절제운동 그룹이 생기게 되었다. 1919년 10월 장로교총회는 공식적으로 아편문제를 거론하고 아편을 금하도록 결정했다. 1920년 YMCA는 각 지방 YMCA를 중심으로 금주동맹이나 금연회를 조직했다. 1923년에는 감리교회가 각 지방에 금주회를 조직하였고, 동년에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가 조직되었다. 1926년에는 오금선(吳兢善, 1879-1963)

39)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418.

40)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404.

41) 이상규, 『한국교회사의 뒤편길』, 104.

의 주동으로 공창폐지운동이 일어났고, 장로교총회가 이를 수락했다. 1927년에는 ‘연합주일학교대회’가 조직되었고, 그 해 미감리회 측에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의 시행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에 대한 협조를 장로교 총회에 의뢰하였고, 장로교는 그 협조를 수락했다. 1930년에는 각 연회에 절제부를 두어 이 운동을 총괄하게 했다. 1933년에 발표된 감리교회의 사회신경에는 주초와 아편사용 금지조항을 삽입시켰다.⁴²⁾ 이러한 전국 조직들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꾸준히 전개되었다.⁴³⁾ 금주·금연운동은 하나의 단체로 통합이 되었는데, 그것이 1932년에 조직된 ‘조선기독교절제회’이다.

금주운동은 감리교와 구세군이 적극적이었다. 미 감리교 선교사들은 연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주를 결의하였고, “계주론”을 지어 신문에 게재했다.⁴⁴⁾ “계주론”에 나오는 내용 중에는 술을 마시다가 죽으면 그 영혼이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것이 실려 있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이 마치 술을 먹은 것과 동일시하는 내용이 게재되기도 했다.⁴⁵⁾ 「구세신문」의 ‘금주호’는 가두 판매는 물론, 철도 공무원 전체에 대한 배부 등으로 널리 보급했다. 특히 금주호에 첨부, 인쇄된 금주 서약서가 독자들의 관심과 금주결심을 촉발시켰고, 이것이 작성되어 구세군 본영에 송부되면서 금주·금연운동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익을 감당했다. 이는 1942년 12월 구세신문이 폐간⁴⁶⁾될 때까지 계속되었다.⁴⁷⁾ 초기 구세신문의 주된 내용은 술은 재앙과 패망과 죄악과 형벌을 이루는 바 좋지 못한 물건인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 밖에도 술과 담배의 경제적, 건강상의 손실과 윤리적이고 영적인 타락의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경제문제까지 기술하고 있다.⁴⁸⁾

YMCA(황성기독교청년회)는 1898년 150명의 한국 상류층의 청년들이 YMCA의 창설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1903년 윤치호, 민영환, 김규식 등의 한국인과 헐버트 등 외국인을 포함한 37인의 발기로 창립되었다. YMCA인사들은 1904년 독립협회 관계로 투옥 되었다. 이 후 기독교로 개종한 인사들이 가담하면서 독립협회의 부활체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1913년 한국 YMCA를 일본 YMCA에 예속시켰다.

42)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274-275.

43)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74-277.

44)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두레시대, 1998), 412.

45) 아펜젤러, “계주론”,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권 32호(1897. 9. 8), 131.

46)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410.

47)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75.

48)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75.

그럼에도 불구하고 YMCA는 총무 이상재를 중심으로 3.1운동의 민중적 기반을 마련했다. 1920년부터 YMCA는 각 지방 YMCA를 중심으로 금주동맹이나 금연회를 조직했다.⁴⁹⁾ 민족주의 의식이 강했던 YMCA는 금주·금연운동을 민족운동과 동일시했다.

한국에서 금주·금연운동이 조직적인 운동으로 구조를 갖추기 시작한 것은 1923년 9월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가 조직되면서부터이다. 그 전에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의 크리스틴 텅링(Miss C. I. Tingling)이 방한하여 거의 300여회의 강연을 했다.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는 국제적인 조직체인 ‘세계기독교여자절제회(World Woman’s Christian Temperance Union)’의 한국지부로 1923년 9월 18일에 발족되었다. 초대회장으로 홍에스더가 취임했다. 그리고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의 초창기 총무였던 손메례(孫袂禮, 1885-1963)는 전국에 여자절제회를 16개소를 조직하여 1천5백여 회원을 참여케 하고 전국 방방곡곡 순회하며 절제 강연회를 가졌다.⁵⁰⁾ 손메례는 이렇게 외쳤다.

이 술을 박멸합시다. 우리 조선에서 새 가정을 건설하려면, 우리 사회의 아름다운 운명을 개척하려면, 우리 조선의 새싹을 보여주려면, 먼저 금주함에 있습니다.⁵¹⁾

1900년대 한국에는 선교사들이 금주·금연을 엄격히 단행했고 교회마다 절제 주일을 지켜 술과 담배의 해독을 가르치면서 금주운동을 활발히 전개했다. 1920년대 초 한국의 기독교 금주·금연운동의 대표적 단체는 1923년 9월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와 ‘기독교청년회(YMCA)’이며, 이 두 조직은 금주, 단연, 공창폐지, 축첩반대운동을 결의했다.⁵²⁾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는 취지문에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금주·금연운동을 중심으로 가정과 나라를 부유하게 하며, 모든 사회악과 퇴폐풍조를 일소하여 평화롭고 깨끗한 새나라와 새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는 지회조직과 전국순회 강연회를 통해서 절제생활을 계몽했다. 1926년에는 전국 26개 지역에 지회를 조직하여 3천명의 회원을 확보했다. 1929년에는 137

49)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75.

50)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398.

51)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399.

52)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708.

개 지회 4천2백여 명의 회원으로 확대되었다. 1930년 1월에는 기관지 「절제」를 창간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금주 강연회가 금지되고, 각 여학교에 설치되어있던 절제회 지부가 ‘교풍회’로 명칭이 강제 변경되면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았다.⁵³⁾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는 여성들이 주도가 되어 일어난 금주·금연운동이었다. 반면 남성들에 의해 일어난 초교파적인 금주·금연운동은 1927년 3월11일부터 황해도 황주군에서 열린 ‘연합주일학교대회’이다. 수 천명의 기독교인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낮에는 깃발과 플랭카드를 들고 시가행진을 벌이고, 밤이면 예배당에서 금주 강연회를 열었다. 뿐만 아니라 주마정벌 행군을 거행하고 주마 공판까지 열어 주마의 상징물에 대한 화형식까지 거행했다. 그리고 황주역에서 금주·금연운동 요원들이 나아가 경의선 승객들에게 황주의 명산품 사과를 금주, 금연선전 유인물에 싸서 제공함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⁵⁴⁾

53)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대한기독교출판사, 1992), 276.

54)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43.

4. 금주·금연운동의 전개

송상석은 1925년부터 1938년, 일제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제정하기까지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했다. 1920년대는 일제가 조선에서 이른바 ‘문화정치’를 했다. 3.1운동이후 일제는 무력적 통치로 독립의지와 반일 감정을 잠재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식민통치 방식을 무단정치에서 문화정치로 전환했다. 무단통치의 상징인 헌병경찰제를 보통경찰제로 전환하는 모습이 그 한 예이다. 이 시기에 일제는 조선민족에게 비교적 언론의 자유를 주었다.⁵⁵⁾ 1930년대 일제는 파시즘체제를 구축하여 대륙침략에 집중했다. 1931년 만주사변을 시작으로 1937년 중일전쟁에 이어 1941년 태평양 전쟁을 도발하게 된다.⁵⁶⁾ 이러한 배경 속에서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이 전개된 것이다.

1925년 3월 20일, 송상석은 ‘절제운동서한지’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절제운동서한지’의 슬로건은 “금주운동 반대자는 타인이 아니요 의지가 없는 자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⁵⁷⁾이다.

송상석이 주도한 금주·금연운동은 크게 4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주마정벌행군’,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기성동맹’, ‘조선기독교절제회’,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시행촉성회’이다. 괄목할 만한 것은 상기한 4개의 절제회는 일제 강점기 때 한국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금주·금연운동 단체였다.

4.1 주마정벌 총사령부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금주·금연운동은 열기를 더해갔다. 금주운동은 서북과 영남 지방에서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것은 선교사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었다. 감리교는 각 지방에 순회 강연대를 파견하여 금주 강연을 실시했다. 특히 1924년부터는 매년 2월 첫째 일요일을 금주선전주일로 선포하고, 각 교회마다 같은 순서로 지키며 가두시위 선전을 실시했다. 평양에서는 북감리교회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금주단연동맹’의 활동이 있었다. 이 시기에 가장 주목한 말한 것은 황해도 황주에서 있

55) 일제의 문화정치의 핵심은 한국민족의 구성원을 신분과 계급에 따라 차별 우대함으로 한민족 내부의 분열과 반목을 조장하는 민족분열책이었다.

56) 손봉호, 조성표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36-38.

5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43.

있던 ‘조선금주운동단’의 대대적인 ‘주마정벌행군’이었다. 기독교신보는 ‘세계적으로 된 황주 금주선전’이라고 대서특필하고 있었다.⁵⁸⁾ 1927년 초 황주에서는 전국 황주 주일학교연합대회 형식으로 그곳 주일학교와 금주동맹, 그리고 동경의 금주동맹과 동아일보등 19개 단체의 후원으로 홍성찬, 이동희, 이학봉, 한몽현, 송상석(금주운동 본부장)등과 함께 자동차와 자전거 그리고 악대를 내세워 5일간 순회 선전을 했다. 그리고 11월 3일에는 ‘전투식 주마정벌행군’에 1,200여명이 참가하여 선전대기를 휘날리며 시가 일주 행렬시위를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는 ‘주마공판’이 김화식의 주재로 열렸다. 그 기간 동안 금주 강연회에 수 천명이 회집되었다. 이들은 이 운동을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확대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며, 곧 ‘조선민중금주운동총동맹’을 조직하고 국제금주연맹에도 가입하며, 주정문제 연구소의 개설과 「금주신문」발행, ‘금주법안적용운동’, ‘알콜중독자치료부’설치, 그리고 ‘금주운동총동맹’에서는 1만에서 10만 명까지의 회원모집을 목표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고 있었다.⁵⁹⁾ 그리고 황주에서 주일학교 세계대회⁶⁰⁾가 모였는데, 여기에서 주마정벌 총사령부(酒魔征伐總司令部)가 조직되었으며, 송상석은 총사령관이 되었다.⁶¹⁾

4.1.1 주마정벌 행군

본 대회는 전국주일학교 연합회를 주최로 하여 1927년 11월3일-7일까지 5일간 열렸다. 실무진은 ‘전대회금주선교부’와 ‘조선금주운동단’이었다. 송상석은 ‘조선금주운동단’의 대표였다. 임원으로는 주마정벌총사령관인 송상석, 참모총장 홍성창, 군의(軍醫)총장 이동희, 군가지휘(指揮)관 한몽연, 연대장 신재봉, 장도순 외8인이다.⁶²⁾

참가인원은 32개소의 주일학교와 3개의 금주단체 총1,200명이다. 후원단은 ‘동아일보사’, ‘중외일보사’, ‘조선일보사’, 3지국, ‘동경금주동맹회본부’, ‘황주금주동맹회’, ‘장동금주동맹회’, ‘평양금주단연회’, ‘황주우편국’, ‘금융조합’, ‘흥업회사’, ‘명치농회’, ‘단창회사’, ‘황주평과공사’ 등 19개 단체이다.⁶³⁾

제1일은 자전거로 시가순회를 하면서 금주 포스터를 부착했다. 제2일은 금주자

58) 「기독교신보」 1927. 12. 10.

59)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400.

60) 송상석은 본 금주대회를 “세계적인 금주대회”라고 부르고 있다.

6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44.

62)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44-145.

6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44.

동차에 선전대원과 악대가 탑승하고 시가를 2번 돌면서 선전 전단지를 산포(散布)하고 오후에는 정차하고 있는 열차에 올라 대장 송상석 외 10인이 승차하여 금주평과 천개(禁酒平果千個)와 전단지를 무료로 배부하면서 황주역과 흑교(黑橋)역 문에 간단한 금주연설을 5회 하였는데, 선전광포(宣傳廣布)된 것이 북으로는 남북 황주와 서북 이아(利亞)와 막사과(莫斯科)와 소비에트와 하얼빈, 북경, 상해(上海), 대련(大連) 등지이고, 남으로는 일본대판(日本大阪), 동경과 태평양을 건너서 광국(光國), 호주와 인도와 대만(臺灣)까지였다.⁶⁴⁾

제3일은 선전대원 1,200명이 황주사립양성(養性)학교 운동장에 운집하여 주마정벌행군식을 거행했다. 이때 사령관 송상석이 행군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고, 평양금주회장 김본준의 축사가 있었다. 총사령관인 송상석은 주마정벌행군을 전쟁으로 선포하고 결코 후퇴는 없다고 강하게 외쳤다. 이 때 젊은 여성들과 악대가 선두에 섰고, 송상석과 참첩총장인 홍성창, 군의총장 이동희가 대열의 선두에 있었다. 그리고 그 뒤를 1,200명의 대원이 뒤를 따름으로 행군은 시작되었다. 이들이 시가를 일주하면서 전단지 수천장을 운집된 농촌인사들에게 배부했다. 저녁 7시에는 황주 장로교회 예배당 내에서 송상석의 사회 하에 김화식의 금주 강연이 있었다, 이어서 ‘주마공판’이 개정되었다.⁶⁵⁾

제4일은 선전대원이 큰 깃발을 게양하고 품평회장에 집결하여 금주평과 수천 수백개와 선전 전단지를 배부했다.⁶⁶⁾

제5일은 선전대기를 시가 중요한 도로에 게양하고 금주운동자와 지방유지가 차후에 있을 방책을 연구했다. 본 사령부는 표어로 3개의 슬로건을 걸었다. 첫째 조선의 구원은 금주, 둘째 술은 악마의 흥기, 셋째, 교육과 산업과 경제를 금주운동으로 원조하자이다. 운동의 방법은 적극적과 소극적으로 했다. 이후에도 본 사령부에서는 계속적으로 금주신문과 잡지발행경영을 진행했다.⁶⁷⁾

4.1.2 주마공판

주마정벌 행군 중 ‘주마공판’이 있었다. 이는 주마(酒魔)에 대한 공개재판을 여는 것

64)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44.

65)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45.

66)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45.

6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44-145.

이다. 주마 공판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판장은 이학봉, 원고는 송상석 총사령관, 판결언도 검사는 백승건이다. 원고인 송상석이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주마는 살인, 강도, 강간, 방탕, 윤리와 도덕파양, 인권유린, 경제파멸, 상해치사, 망신망가, 암국, 망세, 유혹이다.” 이어서 증인 입증이 있었다. 원고는 주마의 죄상을 드러내어줄 증인들에 대한 입증을 시작했다. 5종류의 증인으로 정리했다.⁶⁸⁾

첫째, 도덕과 종교적 증인: 예수, 공자, 석가, 솔로몬, 고금명현 등.

둘째, 교육상으로 본 입증 증인 : 서양의 교육대가인 후레-베, 일본귀족원, 문학박사 류정태, 소크라테스, 톨스토이, 현실입증인 홍성창.

셋째, 산업과 경제상으로 본 입증증인 : 조선 경제학상 명사 일본 정치대가 타카시마(高島), 현실입증인 하다노카주에(羽田野一江).

넷째, 율법과 정치상으로 본 입증 소비에트정부, 법학박사 호주미 시게토(穗積重遠), 일본외무성 나가이류타로(永井柳太郎), 현실입증은 한몽련.

다섯째, 의학상으로 본 입증 의학박사 리이데이런씨, 大澤, 片岡三, 의학박사, 현실감정인 이동희.⁶⁹⁾

재판장 이학봉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낭독했다.

피고(被告) 주마(酒魔)는 인류계(人類界)에 간악한 대적(大敵)인 까닭에 도덕과 행복 향유법(幸福享有法) 제1조와 국제부주법안(國際芋酒法案)에 의하여 주마는 인생계(人生界)에서 퇴거(退去)를 명하고 약금주성지대(若禁酒聖地帶)와 소년소녀의 정신(精身)에 침해시(侵害時)는 사형(死刑)을 처(處)할 사(事)라.⁷⁰⁾

68)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45.

69)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45.

70)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45.

그리고 이학봉이 위의 판결문을 통해 형을 언도(言渡)하자 일천(1千) 수백명의 방청인이 박수를 치고 폐정(閉廷) 했다.⁷¹⁾

‘주마공판’은 주마를 정벌하자는 취지에서 송상석을 중심으로 기획한 것이다. 송상석은 주마정벌 총사령관으로서 주마정벌 행군을 성공적으로 치루어 냄으로 금주·금연운동에 본격적으로 투신했다.

4.2.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 기성동맹

금주·금연법 제정에 대한 실제적인 움직임은 1929년부터였다. 괄목할 만한 것은 각 단체별로 진행되고 있는 금주·금연운동을 하나로 묶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송상석의 역할은 지대했다. 송상석은 1929년 4월 4일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조선에 실시하는 운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상경한 후 6월부터 경성구 인사정 중앙예배당 부속실을 임시 사무소로 정하고 동지 결합 운동을 전개 했다. 9월에는 장로교 총회와 북 감리교 연회와 조선 주일학교 연합회가 미성년자 금주·금연 실시 운동의 감행을 결의하였고,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운동 안이 성안되어 동지회에 채택되었다. 이듬해 5월 2일 각 단체 대표자들이 경성구 인사정 사무실에 회집하여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기성동맹’이 조직되는 동시에 각 언론기관지의 적극적 후원교섭이 성공을 거두었다. 그러나 이 동맹회는 곧 해산되었다. ⁷²⁾

1930년 5월 26일 오후 2시를 기약하여, 조선 총독에게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 기성동맹 대표의 면접 진정건이 사정에 의하여 파열되자 5월 30일에 운동 책임자 송상석은 좌수무명지를 전달하여 혈서로 위원들을 격려하며 최후까지 분투할 결안을 표명 공약했다. 그러나 기성동맹 운동은 부진상태에 처하였고 부흥될 소망이 없었다.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판단한 기성동맹의 총무인 송상석은 경성을 떠나서 운동 근거지를 평양으로 옮기고 방식을 고쳐서 운동단체 재건에 노력했다.⁷³⁾

비록 기성동맹은 파열 되었지만, 한국교회의 장로교와 감리교가 연합하여 공동의 선을 위하여 협력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 중심에 송상석이 가교(架橋) 역할을 했던 것이다.

7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45.

72)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2.

7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2-534.

4.3 조선기독교절제회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193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는 전국적인 조직을 하나로 모을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데 대한 결과물이었다. 이 당시 한국기독교의 중심지는 평양이었다. 그 이유는 한국을 대표하는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장로교를 중심으로 많은 신자들이 모여들었다. 그중에 민족 지도자들도 상당히 참여했다. 이러한 결과물로 1932년 5월 5일 ‘조선기독교절제회’가 조직 된 것이다.

초대임원으로는 회장 채필근, 조만식, 서기 우호익, 이권찬, 회계 정두원 강봉우, 총무 송상석, 고문 곽안련, 편해도, 이사 15인이다. ‘조선기독교절제회’는 전국적 각지에서 계몽, 선전운동과 교육을 펴고, 집회 때마다, 금주, 금연관계, 전람회와 가두시위, 유인물 배포 등으로 활발히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했다. ‘조선기독교절제회’는 장로교가 주축이 되었다.

장로교 제8회 총회는 1919년 10월 4일 평양에서 회집하였고,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결의를 하였는데, 아편사건에 대하여는 허가 받은 의사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용하는 것 외에 교인에게 먹이거나 매매 하는 것이 있으면 당회에 부화하여 처리할 것을 결의하였고, 1922년 총회는 만국금주회 총무 린을팅 부인을 초청해 서울 평양 등 도시순회를 하면서 5일간 금주 강연을 실시하였고, 1926년 총회는 오공선이 공창폐지에 대하여 말함에 박수로 환영하고 이 건에 대하여 후원하기를 결의했다. 1929년 장로교 총회는 미 감리회 연회에서 절제회가 협동 청원한 ‘미성년자흡연음주금지법안’을 제출함에 총회의 명의를 빌려주기로 결의했다. 1932년 총회는 ‘조선기독교절제회’ 대표에 채필근을 해회(該會)에서 승인하여 달라는 청원을 수용했다.⁷⁴⁾

무엇보다도 ‘조선기독교절제회’의 가장 큰 활동은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를 법제화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1932년 12월 16일에 ‘조선기독교절제회’와 교계 및 일반사회유지들과 함께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발기 했다. 미성년자들에 대한 금주·금연에 관한 법률제정에 대하여는 1929년에 이미 송상석을 중심으로 기성동맹이 형성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기성동맹이 해체되고 난 뒤 다시금 ‘조선기독교절제회’가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조선에

74)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48.

시행하게 하기 위하여 이 축성회를 만든 것이다.

‘조선기독교절제회’가 설립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은 송상석이다. 송상석은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기성동맹’이 해체되고 근거지를 평양으로 옮긴 후 1931년 평양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리고 1931년 6월 1일에 평양 신학교 교수 곽안련 박사의 지도하에 평양신학생 금주 현상 웅변대회를 계기삼아 신학교 교수, 송전 송중 교수, 여신학원 교수와 전 조선 각지 저명인사와 남녀학생, 유지등 125명으로 ‘조선기독교절제회’⁷⁵⁾를 조직하여 각 방면으로 운동을 지속하였으며, 1932년 1월부터 총무 송상석은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하였으며,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의 필요를 선전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조선기독교절제회’ 발기인 대표 이동희외 49명은 설립취지를 발표했다. ‘조선기독교절제회’는 설립취지문을 통해 금주·금연운동은 복음운동이며, 주초를 비롯한 중독성 있는 물질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를 박멸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⁷⁶⁾

조선일보는 1932년 5월20일자 기사에서 ‘조선기독교절제회’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평양부내 장로교파 중심의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가 일전에 창립되었다. 동회의 목적은 기독교정신에 의하여 절제생활과 사회정화 운동을 수행기로 기함”.⁷⁷⁾

조선기독교 절제회의 사업목표는 금주, 금연, 교풍(矯風), 공창폐지, 저축 장려, 미신 타파 등으로 사업에 대한 조사, 연구, 출판, 선전 순회강연, 강습회개최, 기금 장려, 기금적립, 지회설치 등을 실행하며, 국제적 기관에 가맹하여 활발히 활동하기로 함을 결의했다.⁷⁸⁾

4.4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 시행 축성회

‘조선기독교절제회’ 총무인 송상석은 1934년 4월에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개최된 일본 국민금주동맹 전국대회를 방문하고 조선의 금주·금연법 실시운동에 적극적인 후원을 청원하여 동대회로 하여금 금주·금연법을 조선에 실시할 건의를 정부요로에 제출케 하였고 동시에 척무성좌등 참여관을 통하여 본 법안실시를 진정하였고, 10

75) 정확한 명칭은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朝鮮基督教節制運動會)이다.

76) 「기독신보」 1933. 5. 5.

7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63.

78)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163.

월에 총독부 황무국 엄사회 과장을 통하여 해(該)법 실시와 미신타파와 공창폐지등을 진정했다. 그러던 중 1935년 2월에 중앙고보교와 해주고보교의 음주로 인한 불상사와 꼬리를 물고 발생하는 각지의 학생풍기문란을 계기로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황무국과 법무국에서 실시할 의지가 강하게 되었고, 이에 절제운동회는 1935년 10월 3일에 조선 사회사업 대회시에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를 본부에 건의할 것을 결의했다.⁷⁹⁾

1935년 12월에 평양에 본부를 둔 ‘조선기독교절제회’에서는 해법실시를 위한 운동을 강화할 방편으로 송상석 총무를 경성에 파견하여 각계 유지들과 함께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촉성회’를 조직하고 일반사회 대중운동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총독부 심의실에서 법안실시를 반대함으로 법안이 묵살되자 촉성회는 다방면으로 본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그러던 중 1936년 8월 29-30일 동경에서 개최된 ‘동양금주대회’에 초청을 받은 송상석은 동경시 구단하(九段下) 군인회관에서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 운동 연설을 하였는데, 찬동과 후원이 전폭적으로 전개되었다.⁸⁰⁾

조선교회는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촉성회’는 일본인 미성년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이 적용되고 있어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조선의 미성년자들에게는 보호조치가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으로 본 법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된 단체이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미성년자 금연법이 명치 33년(1900)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금주법은 대정11년(1922)부터 시행되고 있었다.⁸¹⁾

1929년 9월에 4개의 단체가 연합하여 조직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기성동맹회’가 이듬해 5월에 해체되었다. 불과 7개월 동안 존재했던 것이다. 이로 인해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1931년 평양신학교내 ‘조선기독교절제회’가 조직되었고, ‘조선기독교절제회’는 송상석을 동경으로 파송한다. 그 목적은 일본 금주동맹과 손을 잡고, 그 지도자들의 지도를 받아 조선에서도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35년 12월 16일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조직하고 사무소를 종로에 있는 예수교서회 빌딩 내에 두었다.⁸²⁾

79)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3.

80)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3.

8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9.

82)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493. 본 촉성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 기독교청년회 조선연합회(회장:윤치호),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장:정인파), 기독교조선감리회(총리사:심주삼), 조선일보사(고문:조만식), 조선주일학교연합회(협동총무:석근옥), 감리교협성신학교(교수:김창준),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교장:오궁선), 조선기독교교육협회(회장:유억겸), 구세군조선본영, 구세신문

조선중앙일보는 1935년 12월 1일자 주기사로 ‘미성년 금주법 실시 촉진운동, 전 조선에 송격(送檄)! 기성동맹을 결성,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에서 결의, 책임위원 단지혈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고, 이 운동회는 20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이들에게 금주법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 평양신학교 안에서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조선에도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시행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며, 이 운동회의 지도자는 남궁억, 우호일, 송상석임을 밝히고 있으며, 송상석은 금주·금연운동을 위해 10년 전에 단지혈맹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⁸³⁾

1935년 12월 16일에 결성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는 윤치호(위원장), 정인파, 양주삼, 오금선, 백낙준, 김창준, 이대위 등을 위원으로, 그리고 송상석을 총무로 해서 포스터 제작, 순회강연, 위정당국 교섭, 여론형성 등을 통해 이 운동을 전개했다. 1935년 12월 14일자 동아일보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기독교 평양절제회의 제창에 의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운동촉성회’의 발기 위원회는 13일 오후 6시부터 시내 관철동 백합원에서 윤치호 씨등 기독교계 10여 인사의 참집 아래 열고 평양으로부터 상경한 송상석 목사의 총독부사회과장을 방문하고 진정한 전말의 보고가 있는 다음 서울에 그 촉성회의 총본부를 설치할 필요를 역설하자 찬성과 반대 두 편의 의견이 구구하여 갑론을박을 하였으나 결국 설치하기로 결의하고 그 창립위원으로 윤치호, 김창준, 오금선, 백낙준, 이대위씨등 오씨와 총무로 송상석씨를 선거했다. 그리고 그 세칙 작성과 창립준비는 위원들에게 일체 위임한 후 동 아홉시 쯤 되어 무사 폐회했다.⁸⁴⁾

이렇게 하여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가 조직된 것이다. 이 촉성회는 일본 정부가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을 입법화하는 1938년 3월까지 지속되었다. 본 촉성회는 8가지의 결의 사항을 정하여 실행에 옮긴다. 즉, 가맹단체 교섭, 기관지 발행, 포스터 및 전단지 제작, 순회강연, 위정당국에 교섭, 사회여론 환기, 실시청원

(주필:이건영). 연희전문학교 문과(과장:백낙준),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회장:채필근), 기독교청년면려회 조선연합회(총무:이대위), 감리교엠패월청년회(회장:이항신), 조선금주운동단(총재:이동희), 여자기독교절제회 조선연합회(총무:이효덕), 기독교절제회 후원 유지대표(총무:송상석) 동아일보사(사장:송진우), 조선일보사(사장:방응모), 조선중앙일보사(사장:여운형), 조선교육협회(회장:유진태), 의사회(회장:심호섭).

83) 「조선중앙일보」 1935. 12. 1.

84) 「동아일보」 1935. 12. 14.

자 모집, 각 지방도시 중심 위원 선정이다.⁸⁵⁾ 이 축성회는 다양한 홍보 활동을 했다. 특히 신문이나 잡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총무 송상석은 다방면으로 본 축성회가 이룩하고자 하는 미성년자 음주·흡연 금지법 제정에 대한 당위성에 대하여 많은 기고를 했다.

본 축성회는 사회운동적인 성격이 있음과 동시에 교육적 효과도 상당한 것이었다. 이는 정규적인 학교교육 이상이었으며, 한국기독교 사회교육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 것이다.⁸⁶⁾ 송상석은 비중 있는 금주·금연운동을 펼칠 때 주로 총무를 맡았다. 이는 송상석이 금주·금연운동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85)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성광문화사, 1979), 496.

86)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77.

5. 금주·금연운동과 입법 활동

일본의회는 1938년 3월 22일 조선의 미성년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고 동년 4월 1일부로 조선에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을 시행할 것을 칙령 145호로 공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송상석이다.

송상석의 주도로 이루어진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은 1938년 4월 1일부터 조선에서 시행되었다. 이 법령이 시행되기까지는 법안이 발의된 지 16년 정도가 소요되었다. 본 법안을 최초로 발의한 단체는 ‘조선기독교북감리회’이다. 북 감리회 절제(금주·금연)위원회는 1922년 9월 27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제15차 연회에서 본 회의에서 미성년자들에게 금주·금연할 것과 공창을 폐지해주도록 총독부에 청원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제정을 위한 행보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그러던 중 1929년 9월에 조선예수교장로회, 조선기독교북감리회, 조선기독교남감리회, 조선주일학교연합회가 합동으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기성동맹회’를 조직했다. 그러나 1930년 5월 본 기성동맹회는 해체되었다. 5년이 지난 후인 1935년 다시금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실시케 하자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해 12월 16일 ‘조선기독교절제회’는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조직하여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제정해 줄 것을 일본정부에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본 법안이 제정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1 법안의 내용

미성년자 흡연 금지법

제1조

미성년자는 연초 흡연을 하지 못함

제2조

전 조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행정처분으로서 흡연을 금지키 위

하여 가지고 있는 담배와 기구를 몰수함.

제3조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그 내용을 알고도 그 흡연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을 때에는 일원 이하의 과료에 처함. 친권자를 대리하여 감독자의 책임이 있는 자도 전항에 의하여 처단함.

제4조

미성년자에게 그가 자용할 줄을 알고도 담배와 또는 기구를 판매하는 자는 십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법률 제3십3호.

미성년자 음주 금지법

제1조

미성년자는 주류를 음용하지 못함.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 또는 친권자를 대신하여 이를 감독하는 자는 미성년자의 음주하는 줄을 알 때에는 이를 제지할 사영업자로서 그 업무상 주류를 판매 또는 공여하는 자는 미성년자의 음주에 쓸 것을 알고 주류를 판매 또는 공여하지 못함.

제2조

미성년자가 그 음주에 쓸 목적으로 소유 또는 소지한 주류와 그 기구는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몰수하고 또는 폐기하던지 기타 필요한 처치를 하게 할 수 있음.

제3조

제1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는 과료에 처함.

제4조

영업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될 때에는 본 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할 법측은 이를 법정대리인에게 적용한다. 단, 영업에 관하여 미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 미성년자에게 대하여는 차한에 부재함. 영업자는

그 대리인, 호주, 가족, 동거자, 고용인과 기타 동업자로서 그 업무에 관한 본 법에 위반할 때에는 자기의 지휘가 아니라는 이유로서 처벌함을 면하지 못함. 명치 3십3년 법률 제5십2호는 본 법에 의한 범죄에 이를 준용함.⁸⁷⁾

5.2 법안 제정의 당위성

송상석은 1936년 12월에 발행된 금주신문에서 ‘금주·금연법을 조선에도 미치게 하라’는 글을 기고한다. 그는 글의 서론을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무슨 까닭으로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조선에 실시하지 않느냐!
정부당국이여 빨리 각성하십시오. 우리들은 금반 양법을 조선에도 실시되도록 하는 운동을 개시했다. 당국의 색안경과 일부의 반대가 있을 것은 예상하지마는 천하 정의인도(正義人道)의 인사(人士)여 하(下)의 각항에 대한 이해 있으시기 바라노라⁸⁸⁾

이 글의 본론에서 송상석은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의 재정 필요성에 대하여 6가지의 대지로 피력하고 있다.

첫째는 근본적 이론의 입장이다. 즉, 미 성년기 때 음주성벽(飲酒性癖)을 예방하는 것이 유일한 방침인데, 일본 정부는 일본의 청소년들에게는 금주를 법제화하여 보호하는데, 같은 통치하에 있는 조선의 청소년들이 보호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세계적 추세(趨勢)이다. 세계 55개국에 금주정책을 취하고 있다.

셋째는 조선의 역사도 금주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있음을 증명한다. 백제 다누왕 시대에 금주령을 반포하였고, 이조시대에는 세조때 금주령이 발포된 후 당시 충청도 감사(도지사)가 금주령을 위반하여 사형에 처해졌으며, 세종대왕이 26세 때 위병을 앓았는데, 의관의 진찰과 처방에 의하여 약용으로 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영상(領相)이 간언(諫言)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엄명(嚴命)을 내려 주적(酒敵)을 퇴치(退治)

8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7-538.

88)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02. 본 법안은 일본에서 실시중인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17.

했으며, 중종은 군신들이 주류사용을 엄금해서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이라고 했고, 효종은 세자였을 때부터 주류를 일절 엄금하였으며, 숙종(肅宗)은 주해(酒害)를 옅은 시를 만들어 인민을 경계(警戒)했다.

넷째는 금주운동의 실적(實績)상에 관한 것이다. 음주운동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민족의 강성을 촉진하는 것이 이 운동의 순서이지만 법의 제재(制裁)가 가장 유효(有效)하다는 점이다.

다섯째는 금주, 법률, 교육의 삼각관계이다.

여섯째는 교육과 법령이 배치(背馳)된다는 점이다. 교과서에는 ‘신미(新米)를 가지고 집집마다 양조(釀造)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주세관련 법령에는 주류제법(酒類製法)은 모두 면허제(免許制)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집마다 주조(酒造)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범칙자에게는 벌칙이 있어 자가용 주류제조기 면허자(自家用酒類製造既免許者)라 할지라도 엄중히 단속하는 것은 모순되는 것이다. 이는 주류밀조의 악습을 교정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해놓고, ‘집집마다 양조해서 즐겁게 논다’라는 글귀는 교육자 및 아동들에 음주향락의 기풍을 조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과 동일한 통치하에 있는 조선에 미성년자 흡연 음주 금지법을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은 조선 민가로 하여금 총독정치에 불심(不審)을 가지게 하는 유일한 증거라고 말하고 있다.⁸⁹⁾

이 글에서 송상석은 일본정부에게 호소한다. “조속(早速)히 양법(兩法)을 실시하여 조선의 청소년을 술, 담배의 침해(侵害)에서 구제해 주기 바란다. 이 운동을 달성하기 위해 조선내의 동지 단체에서는 준비 중(準備中)에 있다. 감(敢)히 내외 동지제군(同志諸君)의 성원(聲援)을 청한다.” 송상석의 호소는 가히 설득력이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호소는 일본 금주동맹에 대한 설득력을 얻게 되었는데, 이것이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안을 통과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5.3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제정 경위

조선 총독부는 금주·금연운동에 대하여 냉소적이었다.⁹⁰⁾ 그러나 일본 본토에서는 조선의 금주·금연운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1936년 9월 1일 일본 금주·금연 양 동맹에서는 송상석 목사를 맞아 위로 장려회를 베풀어 주었다. 일본국민 금주동

89)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05-506.

90)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4.

맹의 총주사 오시오 소우지(小鹽宗次)씨와 금연동맹의 오카다 미치카주(岡田道一) 박사가 발기인이 되어 1일 오후 5시부터 칸다오가와 마치(神田小川町) 금문우육점(金文牛肉店)에서 송상석을 위하는 위로장려회(慰勞獎勵會)를 베풀어 준 것이다.⁹¹⁾

송상석과 오시오 소우지(小鹽宗次)는 금주·금연 운동으로 깊은 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관계가 조선의 금주·금연법 실시를 위한 법령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세월이 흘러 1977년 11월 25일 오시오 소우지(小鹽宗次)씨 부부는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⁹²⁾

5.4 법령제정을 위한 활동

송상석이 일본을 방문하기 시작한 때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가 1929년에 설립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기성동맹회’의 총무를 맡으면서 부터일 것이다. 송상석은 일본을 수 차례 다녀왔다.⁹³⁾ 일본국민금주동맹 이사장 하야시 류타오(林龍太郎)는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통과된 후 1938년 3월 26일 열린 축하회에 축사를 한다.⁹⁴⁾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통과 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일본금주동맹’의 지지였던 것이며, 이 동맹의 지지를 얻어 내었던 사람이 송상석이다.

5.5 송상석과 미나미 지로(南次郎)의 만남

일본은 1938년 말부터 본격적인 전시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그리고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습격함으로 전쟁이 시작된다.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일본의회를 통과한 것은 절묘한 시기였다. 일본이 본격적인 전시체제를 구축하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일본의회를 통과하는데 있어서 마지막 관문은 조선총독이었다. 조선총독의 재가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다. 송상석은 ‘조선미성년자금주·금연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선총독에게 진정하던

9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06.

92)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9

93) 「禁酒新聞」 第614号(1978. 1. 1). 財團法人日本禁酒同盟이 발행하는 신문에서 1977년 오시오 소우지(小鹽宗次)씨가 한국에 있는 송상석을 방문 하였을 때 했던 말인데, 그는 “도일을 한 두번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수년간의 일인데, 어떤 해는 10여회 도동(渡東)했다.”고 한다.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42.

94)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5.

중 미성년자음주·흡연 폐해에 관한 실정참고자료를 제출하라는 하명을 받게 된다. 이 때의 조선 총독이 미나미 지로(南次郎, 1874-1955)이다.⁹⁵⁾

송상석이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제정을 위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시기에 맞물려 조선의 총독이 교체가 된다. 즉, 우가키 가즈시게(宇垣一成, 1868-1956)가 이임하고 미나미 지로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된다. 그리고 미나미 지로는 약 10개월 뒤 1937년 6월 21일 본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것을 승인한다. 그는 한국인에 대하여 창씨개명(創氏改名), 내선일체(內鮮一體), 지원병제도 등의 탄압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을 쓴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이 재임 초기에 조선의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의 의회상정에 승인을 한 것은 주목해 볼 일이다.

총독의 승인을 받기까지 많은 난관이 있었다. 1936년 4월 총독부의 관제변경과 함께 해(該)법 안건이 사회교육과에 속하게 되면서 이 법안은 총독이 교체되는 시기인 9월까지 유보상태가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 악재가 하나 더 겹쳤다. 그것은 총독부 심의실에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안 제정을 반대한다는 것이었다.⁹⁶⁾ 그러나 다행인 것은 송상석이 1936년 8월 29-30일 양일간 동경에서 개최되는 동양금주대회에 초청을 받게 된다. 초청받은 송상석은 동경에 있는 군인회관에서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실시운동연설을 했다. 이로 인해 찬동과 후원이 전폭적으로 전개되었다.⁹⁷⁾ 이어서 송상석은 1936년 8월 28일 오전 10시에 척상관저(拓相官邸)에서 나가카 타쿠무(永田拓務) 대신을 방문하고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실시해 줄 것을 진정했다. 그리고 1936년 9월 4일에 동경에 본소를 둔 중앙조선협회장 사카타니(阪谷)남작에게 실시운동을 위하여 협력과 원조를 청원하였고 이를 수락 받았다. 또한 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와 정무총감 오오노(大野) 부임 이후 미성년자음주폐해에 관한 실정자료를 제공하라는 하명을 받아, 송상석은 1937년 1월부터 6월 20일까지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실시 참고자료를 수집 편집하여 미나미 지로 총독과 오오노 정무총감에게 제출했다.⁹⁸⁾ 송상석이 제출한 자료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95)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09, 535. 송상석은 미나미 지로를 2회 만났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미나미 지로가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실시에 대한 송상석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오노(大野)정무총감과 함께 송상석을 만났으며, 그 결과 총독은 송상석에게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하였다. 두 번째 만남은 1938년 4월 4일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일본의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인사로 만난 것이다.

96)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4.

9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4.

98)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4.

1. 미성년자 음주 흡연 금지법을 조선에 실시해야 하는 필요성

일본은 이미 청소년과 학생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금하는 법을 시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일부인 조선도 역시 본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⁹⁹⁾

2. 미성년자 음주 흡연을 금지해야 하는 이유

미성년자들의 신체는 발육의 도상(途上)에 있기 때문에 음주와 흡연은 미성년자들의 발육에 해를 줄 수 있다. 또한 미성년자의 정신역시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誘惑)에 빠지기 쉽다.¹⁰⁰⁾

3. 교육상 폐해(弊害)의 실례

술로 인하여 발생한 살인 사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¹⁰¹⁾

4. 미성년자 음주 흡연의 폐해에 관하여 당국의 대책 여하

본 법안을 제정하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음주로 인한 사고를 발생시키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다.¹⁰²⁾

미나미 지로 총독의 부임 직후 송상석은 동경에서 개최되는 동양금주대회에 초대를 받는다. 이것은 10개월 뒤 조선 총독이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재가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미나미 지로 총독이 전임 총독부에서 반대해왔던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재가 해준 이유는 이 시기가 미나미 지로의 관점에서 볼 때, 전시동원령이 선포되기 전이었고, 조선 민족들에 대한 민심을 살펴야 할 때였고, 또한 일본 본토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일본금주·금연동맹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기까지는 결코 순탄치 않았다. 척무성 당국에서도 이론(異

99)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09-510.

100)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11.

10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12-514.

102)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14-515.

論)이 분분하여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을 천연(遷延)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일본에서 시행한 결과 이 법이 효과적이나 비효과적이나 하는 쟁론이 있었던 까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쟁론은 과학적 조사를 세밀히 한 결과 해(該)법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이 증명되어 1938년 3월 초에 내각 법제국으로 회부되었다. 이 법안은 1938년 3월 18일에 법제국 심의회를 통과하고 칙령안 수속을 정비하여 각의에 상정되었다. 이어 3월 22일에 해 법안이 각의를 무난히 통과했다. 3월 25일에 재가를 받아 26일 관보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것을 칙령 145호로 공포했다. 1938년 4월 4일에 ‘해법실시촉성회’위원 대표 일동은 총독부 총독실에서 미나미 지로 총독을 회견하고 조선에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실시하게 됨에 대한 감사의 사례를 했다.¹⁰³⁾ 그리고 1938년 4월 18일 각계 유력자의 발기로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 축하회를 경성부민관에서 거행했다.¹⁰⁴⁾

여러 가지 난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회회의 승인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의 금주동맹과 금연동맹의 역할이 컸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양동맹의 협력을 이끌어 낸 사람은 ‘미성년자금주·금연금지법실시촉성회’의 총무였던 송상석이었다. 송상석의 끈질긴 외교활동으로 본 법안이 조선총독의 승인과 일본의회를 통과한 것이다.

5.6 송상석의 입법 활동의 특징

송상석의 입법 활동은 두 가지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내에서의 활동이고 둘째는 일본에서의 활동이다.

그는 1929년부터 본격적으로 입법 활동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여러 가지 난관이 있었으나 그의 의지는 강했다. 이는 그가 단지혈맹을 하면서까지 금주·금연운동에 집중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주도하여 생성된 단체들을 보면, 한국역사에 있어서 금주·금연운동의 한 축을 이루었던 단체들이다. 특히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는 한국사회 및 한국교회의 절제운동사에 반드시 등장하는 단체이다. 그 이유는 이 운동회가 조만식을 비롯한 한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대거 동참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평양신학교에서 출범을 하였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는 송상석을 동경으로 파송한다. 그 목적은 일본 금주동맹

10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0. 대면자는 송상석, 윤치호, 이동희, 소다 카이지(曾田喜伊智), 그리고 김창준이었다.

104)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0.

과 손을 잡고, 그 지도자들의 지도를 만나 조선에서도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을 제정하기 위함이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35년 12월 16일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조직했다..¹⁰⁵⁾

송상석은 일본에서도 입법 활동에 힘을 기울였다. 그리고 결국은 일본금주동맹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게 되었고, 이것이 조선총독을 움직인 중요한 요인이 된 것이다.

5.7 법률제정 이후

송상석은 1938. 4. 15. 동아일보를 통해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의 당위성에 대한 논증을 기고했다.

지난 3월 16일부 칙령으로서 ‘미성년자흡연금지법’과 ‘미성년자음주금지법’이 발포 시행되어 동 31일부로 정무총감의 이름으로 동 법령 제정 취지와 운동에 대하여 통첩했다. 즉, 취체에 당하여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점에 유의하여 급격 또는 과혹한 취체가 없도록 그 운용의 원활을 기하고 미성년자로 하여금 금지법령의 정신을 이해시키고 정신적 교화 지도에 의하여 점차 동 법령 시행목적에 달성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1. 동법령은 통교의 개선취지로서 시행된 것이므로 헛되이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일이 없고,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항상 도덕적 견지에서 교정 지도하에서 동 법령 시행의 목적 달성에 노력할 것.
2. 학교와 교화 단체 관계 제단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동법령 취지의 철거를 도모하고 위반행위의 미연 방지에 노력할 것.
3. 다수의 미성년자를 사용하고 또는 유용한 곳에 대하여는 그 책임자에 대하여 동법령의 취지를 설명하고 또는 주류 판매업자 요리음식점 등 술을 제공하는 것을 업태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똑같이 설명하여 위반 행위가 없도록 주의를 촉진할 것.

105)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493.

4. 학교생도 기타 집안의 회동 또는 연회 등 다수 집합한 때에 외부로부터 위반 행위가 있을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함부로 그 장소에 들어가는 것은 도리어 취체의 목적을 달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사후에 적당한 조치를 강구할 것.
5. 몰수처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하지 않으면 흡연 금주의 속행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때에만 한정하여 몰수하고 몰수할 때에는 몰수자가 그 명함의 이면에 몰수 품목 시일 등을 기재하여 날인한 후, 피몰수자에게 교부하여 줄 것.¹⁰⁶⁾

송상석은 1938년 4월 20일자 「절제시보」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주·흡연 금지법 실시 운동을 하게 된 그의 근본적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는 자신의 금주·금연운동은 목회자로서 죄악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는 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마귀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주마와 연독을 인류사회에서 배제하는 운동을 해야겠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던 중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실시 운동을 떠올리게 된 것이라고 회고하고 있다.¹⁰⁷⁾ 이러한 생각은 그의 금주·금연운동의 성격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5.8 법률제정에 대한 평가

일본 미성년자들에 대한 금주·금연법안 실시를 위해 헌신한 사람은 네모토 마사(根本正)이다. 이 사람의 헌신된 노력으로 명치33년(1900) 제 14회 의회에서 미성년자 금연법이 통과 되었고, 그 다음으로 금주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적잖은 노력 끝에 8년 만에 겨우 중의회를 통과시켰으나 귀족원에서 부결시킴으로 좌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곡절 끝에 12회에 걸쳐서 법안을 상정한 끝에 대정11년(1922) 3월 15일에 미성년자 금주법이 일본의회를 통과하였다. 그리고 소화13년(1938)에 3월22일 조선에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의회를 통과한 것이다.¹⁰⁸⁾

106)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8. 「동아일보」 1938. 4. 15.

10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29-530.

108)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43-544.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실행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미성년자의 흡연수가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이를 법률로 취체(取締)하자는 것이고, 둘째는 미성년자의 흡연과 음주가 그들의 신체 발육상 해를 받는 것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다.¹⁰⁹⁾

조선에서 이 법률을 실행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은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이미 일본이 시행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특수한 법이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법이라는데 대한 호소가 일본정부로 하여금 조선에서도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시행이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109)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43-544.

6. 금주·금연운동의 성격과 특징

6.1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성격

흔히 1907년 한국교회 부흥을 ‘대 부흥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한국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지, 사람이 중심이 된 운동이 아니기 때문이다.¹¹⁰⁾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지 인간이 중심이 된 운동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평양에 있었던 부흥을 평양 대 부흥운동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송상석은 자신의 금주·금연운동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이며, 이 일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종으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자신이 받은 소명이라고 증언하고 있다.¹¹¹⁾ 송상석의 신앙은 분명한 칼빈주의의 색깔을 띠고 있었다. 칼빈주의는 인간의 ‘운동’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된다고 보는 견해를 배격하며,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지지한다.¹¹²⁾ 송상석은 평양신학교를 1934년 제29회로 졸업하고 교회의 담임으로 시무하면서 금주·금연운동을 전개 했다. 평양신학교의 교수들은 칼빈주의의 신학을 지지했다. 송상석의 신학의 형성은 주로 평양신학교에서 형성된 것이다.

6.2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특징

송상석은 금주·금연운동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금주·금연운동은 단순한 민족운동이 아니었다. 사실 민족운동은 그 시대의 요구였다. 송상석에 있어서 민족운동은 하나의 가지에 불과한 것이다. 그의 금주·금연운동은 복음운동이었으며, 구령(救靈)운동이었다.

110) 이상규, “1907년 평양대부흥의 역사와 의의”, 『제9회 한상동 기념강좌』(고신대학교, 2006) 16.

11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30.

112) 부득이 본고에서는 금주·금연운동이라는 용어 쓴다. 그 이유는 이 용어가 그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평양 대부흥’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것이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절제교육이었다. 음주와 흡연이 정신적인 건강과 육체적인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를 병들게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조선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주와 흡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절제교육이었다. 특히 그는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그는 청소년들이 금주·금연하는 것과 거기에 상응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절제교육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¹¹³⁾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이었다. 그는 복음은 사회를 정화시킨다고 생각했다. 이는 혁명도 아니고, 민족운동도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애였다. 술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많은 사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항일운동이었다. 식민지 사회에서의 조선민족은 대부분 항일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수많은 항일운동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금주·금연운동 역시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6.2.1 복음운동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복음운동으로부터 출발한다. 기독교신보는 1933년 2월 22일자에서 교회가 금주·금연운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3가지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첫째는 건강의 문제, 둘째는 재정의 낭비에서 벗어나는 것, 셋째는 금주·금연으로 민족의 건실성을 길러, 도덕적으로 민족의 경륜을 높여, 세계를 향해 진출하는 선진적 민족으로 단련해야 한다는 것이다.¹¹⁴⁾ 기독교신보의 내용을 보면 금주·금연운동과 복음운동은 상관관계가 없다. 사회운동이요, 민족운동일 뿐이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무분별한 음주와 흡연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해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최소화 하자는 목적이 하나있고, 또 하나의 목적은 민족운동인데, 지도자들은 일제강점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민족의 설움과 애한을 술과 담배로 달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국력 낭비현상으로 보았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민족운동의 성격을 띤 금주·금연운동을 시

11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05-506.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77.

114) 「기독교신보」 1930, 2, 22.

작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것은 금주·금연운동의 대부분은 기독교 단체에서 주관을 하고 있었으며, 기독교와 민족운동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감지한 조선총독부는 압박을 가해왔다. 그 한 예가 면려청년회의의 서기 이양섭, 강신면, 주덕균 등이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혐의로 검거된 것이다.¹¹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총독부는 한국에서 일어난 금주·금연운동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문을 열어 놓았다. 그것은 일제의 정책을 보면 알 수 있다. 일제는 1938년까지는 조선에서의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민족자치에 대하여 탄력적인 적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1938년 이후 부터는 조선에 대한 압박수위를 점점 높이기 시작했다. 이유는 일제가 전시동원체제로 그 정책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금주·금연운동을 비롯한 그 어떤 민족주의적 성격의 움직임도 용납하지 않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송상석의 경우를 보면 그에게도 민족주의적 성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항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더구나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조선에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항일운동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의 경제적 수탈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포괄적이면서도 분명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민족운동이 아닌 복음운동이었다. 그 이유는 송상석의 저작들에서 나타나는데, 그의 금주·금연운동은 신자로서의 마땅한 삶에 대한 부분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의 금주·금연운동은 선교사들의 금주·금연운동과는 다소차이가 있다. 선교사들의 금주·금연운동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금주·금연운동이었다.¹¹⁶⁾ 그러나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기독교신자들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는 목회자 송상석의 관점이기도 하다.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이 절제생활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이탈한 신자들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회변혁적인 형태를 띠고 있었다.¹¹⁷⁾

그는 ‘조선기독교절제회’ 총무직을 수행하던 당시, “복음운동과 절제운동”이라는 글을 「절제시보」에 게재 했다. 이 글에서 그가 주장하는 논지는 복음운동이 전개될 때에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절제를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는 설교자나 부흥사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난 이후 절제생활을 했다는 고백이 있었

115) 민경배, 『한국교회학의 사회사』, 404.

116) 송상석 역시 금주·금연운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접촉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송상석이 더 비중을 두었던 것은 기독교신자들의 절제생활에 대한 절제교육이었다.

117)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48-50.

고, 또한 무절제한 생활이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 근거가 된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의 문을 막는 것이 무절제한 생활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무절제의 생활을 떠나서 절제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복음이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는데 용이하며, 신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절제생활이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유익하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송상석이 생각하고 있는 금주·금연운동의 핵심이다.¹¹⁸⁾

6.2.1.1 금주·금연운동과 목회 활동

송상석은 평양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활동을 하면서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송상석의 목회활동에 있어서 금주·금연운동은 사회변혁적인 측면 보다는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았다.

1930년대 금주·금연운동은 하나의 사회운동으로 치부되고 있었다. 그러나 송상석의 생각은 달랐다. 송상석은 금주·금연운동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구분할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1930년대 당시 교회 목사들의 대부분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문외 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적이고 교회 중심적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기에 사회운동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금주·금연운동에 대하여 배타적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서에 대하여 송상석이 ‘조선기독교절제회’ 총무를 역임하던 당시 그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요즘 교회일꾼들 중에 절제운동이라는 말을 듣게 될 때에 청이불문에 부치고 말뿐 아니라 교회신성을 모독하는 것처럼 알고 오불관언의 태도를 취하며 또는 절제운동을 불신성시 할 뿐만이 아니라 절제운동 운운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만 끄덕끄덕하여도 성역자 반열에서 한 칭 떨어지게 취급을 하여보려고 함은 상례로 볼 수 없다.¹¹⁹⁾

송상석은 복음운동과 금주·금연운동이 서로 격리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보았다.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사상가들이 모두 절제를 실천하였고, 서구의 기독교

118)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48-50.

119)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48.

와 선교단체가 금주·금연운동을 하고 있으나 조선 교회만은 이 운동에 소극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전도인이나 부흥가들은 이 운동을 반대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회자들의 상당수는 이 운동을 반대 했다고 말하고 있다.¹²⁰⁾ 그 이유는 목회자들은 설교 할 때마다 절제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굳이 조직을 만들어 절제 운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송상석의 생각은 목회자들의 생각과 달랐다. 그는 칼빈의 신학을 따르고 있었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에 있어서 국가는 교회가 외형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훈과 교회의 입장을 변호하고, 신자의 생활을 인간사회에 적응시키며, 신자가 사회적 행동을 시민의 의에 맞추어 형성하며, 서로 화목케 하고, 또한 전반적인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아울러 신자라고 하면서 방종하는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을 광신자라고 규정을 지고 있다. 따라서 교회는 절제된 생활을 통하여 사회를 유익하게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칼빈은 광신자들은 자신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초등학문에 대하여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하늘의 존재들 가운데 앉게 되니,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는 일에 대해 천박하고 세속적인 염려에 휩싸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가치한 일이요 우리의 탁월성과도 거리가 먼 일 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모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는 상호보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교회는 국가의 방종에 대하여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¹²¹⁾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방종하는 백성들을 위해 교회가 금주·금연운동을 하는 것은 충분히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이 이 점에 대하여 좋은 실례라고 할 수 있다. 송상석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천국운동에는 적극성(積極性)과 소극성(消極性)이 있는데 선을 행하고 천당에 가게 하는 것이 적극적이라 하면 매개시키는 것과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 운동도 있어야겠다는 고(故)로 주(酒)로 인하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죄악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독교 금주운동의 필요가 생기는 것입니다.”¹²²⁾

120)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49.

121) Calvini. J. *Institvionis Christiane Religionis*, IV.20.2.

송상석은 금주운동은 전도의 문을 열게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교회의 예를 들고 있다. 그는 미국교회가 금주운동을 시작한지 8년 동안 교인의 수가 증가했는데 이는 금주운동으로 최악의 향락로가 막히고 보니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종교적 위안을 추구하게 되며, 생지옥인 색주가문으로 찾아가는 그 길을 막고 구원의 문이 되는 그리스도를 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기독교 금주운동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고 보았다. 또한 그는 금주운동은 성경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가 신구약 성경 66권 중 술에 관계된 구절을 뽑아보면, 직접관계된 것이 212구절이고, 간접관계 있는 것이 175구절 된다고 보았는데, 이는 성경이 금주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¹²³⁾

6.2.1.2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성경적 근거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술과 담배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삶 전체가 절제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육체의 소욕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끊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는 로마서 8장 5절과 13절을 인용하여 음주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의 행위라고 지적하면서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통하여 기독교인들이 술을 많이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해서 절제생활을 한다고 장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금주·금연운동의 포괄성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¹²⁴⁾

송상석은 바울서신 로마서 7장 21절-24절의 한 구절을 인용하면서 사도인 그조차도 자신의 마음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상호간에 항상 싸움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기독교인들의 금주·금연운동의 포괄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선이 악을 이겨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송상석은 금주·금연운동을 ‘극기자제’라고 불렀다. 이는 정신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 모두에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절제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측면과 물질적인 측면이 상호간에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어 송상석은 금

122)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4.

12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4.

124)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7.

주·금연운동의 적극성과 소극성에 대하여 구분하여 말한다.¹²⁵⁾

송상석은 성경의 구절들을 인용하여 금주·금연운동의 적극성에 대하여 말한다. 마가복음 8장27절-36절을 인용하여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이기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적극적인 절제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한 말씀은 육체대로 살면 영혼이 죽고 육체의 소욕을 죽이면 영혼이 산다고 하면서 금주·금연운동의 적극성에 대하여 말했다. 물질에 있어서도 적극적 의미의 절제생활에 대하여 말하는데, 고린도 전서 7장 31절을 인용하여 세상 물질을 쓰는 사람은 과도히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¹²⁶⁾

송상석은 금주·금연운동의 소극적인 의미에 대하여도 말한다. 그는 산상수훈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마음이 가난한자가 복이 있다는 것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자기의 부족을 깨달아 알고 온유하고 겸손하여 죄를 버리고 의를 추구하는 것에서 금주·금연운동의 소극적 의미를 찾는다.

물질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의미를 찾는다. 마태복음 6장 19-20절을 인용하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을 통하여 정욕을 위해서는 재물을 사용하지 말고 의를 위하여 많이 쓰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6.2.1.3 술에 대한 7난제

송상석은 성경에 언급된 7가지의 난제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그가 말하는 7난제는 다음과 같다.

- ①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한 것
- ② 바울이 음주를 용납한 것
- ③ 구약시대에 술을 제사용으로 사용한 것
- ④ 사람의 마음과 생명을 즐겁게 한다는 것
- 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윗 같은 의인과 성인도 음주하였고, 성전을 건축시에도 술을 사용하였다는 것
- ⑥ 예수께서도 음주하셨다는 것
- ⑦ 예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

125)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7.

126)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7.

송상석은 상기 언급한 7난제에 대하여 7번째인 예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함으로써 나머지 7가지에 대한 답변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사람에게 무해한 것이라 하기 보다는 구원과 멸망에 대한 표상적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만드신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¹²⁷⁾

이는 술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께서 만드신 포도주의 의미는 세 가지인데, 즉, 자신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피로 이해할 수 있으며, 교회는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는 신랑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며,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다는 것이다. 그는 금주운동에는 적어도 5가지의 표준과 3개의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 5개의 표준은 도덕, 위생, 경제, 능률, 후생이며, 3개의 방법은 금주교육, 법률제재(法律制裁), 종교상 감화라고 주장한다.¹²⁸⁾

송상석이 말하는 이중적 의미란 술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7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송상석이 말하는 술의 이중적 의미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분석해보자.

구약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였다. 이는 중동지역의 기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따라서 그들의 주식인 빵과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포도주는 적당하게 사용하면 음식이며, 이를 과용하면, 죄악이 되는 것으로 성경은 치부하고 있다. 이것이 송상석이 말하는 술에 대한 이중적 의미이다. 사실 절제라는 사전적 의미가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함을 말하는 것인데, 송상석에 있어서의 술에 대한 관점은 절제의 정의에 부합함으로써 이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음주를 전면 금지한다는 의미보다는 음주를 적절하게 조절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석은 금주를 고집한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주식은 빵과 포도주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에 대하여는 금주법을 실시하여 전면적 금지를 고집하고 있으며, 성인들에게도 음주에 대하여는 금주를 고집한다.

12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51.

128)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52.

송상석은 기독교가 금주운동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다. 그는 갈 5:21절의 내용이 술로 인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여 그리스도의 정병(精兵)이 된 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된 술과 싸워야 한다고 주장한다.¹²⁹⁾

6.2.2 절제교육

구한말의 한국교회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성경중심의 신앙이다. 가령 전도를 함에 있어서 오늘날은 주로 간단한 전도지를 사용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교회에 올 것을 권한다. 때로는 전도주일을 만들어 몇 명을 전도할 것인지 목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기도 한다. 그러나 19세기 말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기 시작할 때의 전도 방식은 주로 매서인들을 통한 전도였다. 매서인들은 복음의 내용이 들어있는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전도 대상자에게 며칠을 머물며 복음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책들 중 하나가 “장원양우상론”¹³⁰⁾이다. 이 책은 장씨라는 사람과 양씨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전도책자이다. 이 책자는 전도책이라기 보다는 교리서에 가깝다. 기독교의 핵심교리인 신론, 인간론, 기독교론, 성령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의 신학적 주제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분량도 많다.

매서인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는 선교사들과 교회에 소속된 전도인들 역시 전도의 방법으로 교리와 성경을 집중적으로 가르쳤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회심한 사람들을 신자로 초청한 것이다. 오늘날의 전도방식과는 많이 달랐다. 이처럼 한국의 초기 기독교는 성경 중심이었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 역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금주·금연운동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른 금주·금연운동이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성경의 원리에 따른 것이고, 그러기에 단순한 캠페인이 아닌 강도 높은 성경적 절제교육이었다. 따라서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핵심은 절제교육에 있다.

백낙준이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의 서(序)에서 “금지는 소극적이요 강제적인 면이었으므로 적극적 또는 자율적으로 자제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절제교육을 실시(實施)하고 절제생활을 장려(獎勵)했다. 절제는 성신의 열매요(갈5:22), 방종의 제

129)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2.

130) 윌리엄 밀튼(김홍만, 이스테반 공역), 『장원양우상론』(부흥과개혁사, 2012), 1.

승력(制勝力)이다.”¹³¹⁾라고 밝히고 있는 것은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하나의 캠페인적인 것이 아니라 엄격한 절제교육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송상석은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는 그가 ‘미성년자금주·금연법제정’에 대하여 10여년을 투신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송상석은 박형룡의 글을 소개하면서 청년들에게 절제 생활을 통한 실력향상에 대하여 어필하고 있다. 청년기는 일생의 노차(路次)를 정하는 분수령이 되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취미(趣味)를 두지 않으면, 일생에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송상석은 금주·금연운동을 함에 있어서 절제교육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그의 절제교육은 다양한 연령층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절제교육은 성경적인 교육이었다. 그는 성경을 근거로 한 절제교육에 집중했다. 그리고 인물을 근거로 한 절제교육과 과학적인 절제교육을 가미했다.¹³²⁾

6.2.2.1 성경적 절제교육

송상석은 박형룡의 글을 인용하여 청년들에게 절제 교육을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찾았다. 박형룡은 청년에 대한 절제 운동에 대하여 짜이의 말을 빌려 “청년은 인생의 봄이다. 여름의 영광과 가을의 풍작과 겨울의 양식이 이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이는 인생의 아침이다. 의의 태양이 오정 전에 도덕적 하무(霞霧)를 소산(消散)시키지 않으면 흔히 종일토록 미만(瀰滿)하며 음울하게 된다. 이는 인생의 파종기라 사람의 심은 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중요한 것마다 생의 이 시기에 종교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한다.¹³³⁾ 박형룡은 사람의 나이 12세에서 25세가 특수한 회심기이며, 이 시기에 회심 없이 허송(虛送)하는 것은 종교의 절교를 영원케 할 염려(念慮)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청년의 종교적 위대함을 따라서 청년기에는 반드시 조물주를 찾아야 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 근거구절로 전도서 12장 1절을 인용한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¹³⁴⁾

131) 송상석,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1.

132)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5.

13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5.

134)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5.

송상석은 청년들에게 절제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주장한다. 그가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제정하려는 목적은 금주·금연교육에 있는 것이다. 그는 금주·금연 자체가 이미 금주·금연교육이라고 본 것이다.

6.2.2.2 인물을 근거로 한 절제교육

송상석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뿐만 아니라 성경외의 인물들을 통한 절제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송상석은 세계위인의 금주관(禁酒觀)에 대하여 소개한다. 그는 절제교육을 했던 위인들을 소개함으로써 인물을 근거로 한 절제교육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송상석이 소개하는 몇 명의 위인들은 링컨, 간디, 톨스토이, 에디슨, 루터, 칼빈, 무디, 그리고 부스 등이다. 이들 중 링컨, 톨스토이, 그리고 칼빈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송상석은 절제교육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위인으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링컨을 꼽고 있다. 그리고 그의 금주관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그는 링컨이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랜드 장군에게 담배를 끊으라고 늘 권면하였으나 그랜드 장군은 링컨의 권면을 무시하였고, 그 결과 그랜드는 전쟁에서는 승리했으나 결국 니코틴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기록한다.¹³⁵⁾ 그는 링컨의 절제생활에 대하여 평하길, 링컨은 유익한 것은 조절하여 사용하고, 유해한 것은 손도 대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소개한다. 특히 링컨은 청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아라, 담배를 피우지 말아라, 도박을 하지 말아라,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동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진리를 사랑하고, 덕을 사랑하라, 그리하여 행복한 자가 되어라.”라고 강조했으며, 링컨은 “술 장사는 인간 사회의 악이다.”라고 강조했다고 소개하고 있다. 그는 링컨의 술에 대한 관념을 세 가지로 요약하여 정리한다. 첫째 금주는 검증된 진리이다. 둘째 절제는 혁명이다. 링컨은 절제혁명으로 노예해방을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는 금주서약서에 도장을 찍는 일은 가치 있는 일이다.¹³⁶⁾

송상석은 톨스토이의 금주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그는 질문 형식으로 된 톨스토이의 금주론을 소개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첫 번째 질문은 “사람이 왜 자기의 정신을 마취케 하는 술을 즐기는가?”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톨스토이는 네 가지를 언급한다. 첫째는 유쾌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누구나 마시기 때문이고, 셋째는 근심이

135)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633.

136)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635-637.

사라지기 때문이고, 넷째는 술은 건강을 돕기도 하고 정력을 증진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톨스토이의 두 번째 질문은 “술은 전쟁이나 전염병보다도 더 무서운 해독을 퍼뜨린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무서운 술을 마시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 톨스토이의 세 번째 질문은 “누구든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들을 위하여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피하지 않을 만큼 자식을 사랑한다. 그런데 내 자식이 주리고 있는데, 자식을 위하여 쓸 돈을 술에 허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이 처자를 배굶아 울게 할 것인가, 금주 할 것인가? 양자택일 하라고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주를 하지 않고 처자식을 괴롭히기만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고 있다.¹³⁷⁾ 송상석은 톨스토이의 질문을 통하여 절제의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함으로 절제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송상석은 칼빈의 금주관을 소개하고 있다. 칼빈의 금주관은 다음과 같다. 칼빈은 제네바를 떠나 스트라스부르크에 3년을 지낸 후 다시 제네바로 돌아온 후에, 교회 사업을 위한 기관과 사회사업을 위한 기관을 세워 일했다. 교회 사업을 위한 기관은 교회 직원으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상 4급의 직분을 두었으며, 목사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두고, 교사는 신학교나 대학교수에 있게 하고, 장로는 교회의 치리를 주관하게 하고 집사는 자선사업에 전력하게 했다. 사회사업으로는 시민의 생활을 권하는 일과 소통을 위하여 목사 다섯 사람과 장로 열 두 사람으로서 평의회를 조직하여 제네바시를 다스리는 최고의 기관으로 삼았는데, 그 최고의 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신중하게 취급했다. 음주, 댄스, 도박, 사치, 방탕한 가곡 등을 엄금하였고, 점치고 굶한 자와 남녀 점쟁이와 무당들을 엄벌했다. 그리고 매매혼인을 절대 금지한 것과 관혼상례를 정중하게 거행하되, 절약을 위주로 하고 만약 분수에 지나치는 행동이나 신분이나 합당치 못한 몸치장과 풍기를 문란케 하는 의복을 금하였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절제생활에 관한 법칙을 제정한 것이 많았다.¹³⁸⁾

송상석은 절제를 강조했던 지도자들을 소개하면서 금주교육에 대한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누구에게나 쉽게 절제교육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보다 쉽게 다가 갈 수 있는 교육방법을 제시했다.

137)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639-640.

138)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자료집』, 643-645.

6.2.2.3 과학을 근거로 한 절제교육

송상석은 금주과학을 절제교육에 활용했다. 그는 금주에 대한 의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의학적으로 술은 마취약임으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둔하게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신체의 조직세포의 활동을 느리게 하고, 생체 내에 산소공급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면, 근육의 동작과 신경정신의 동작까지 방해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술은 착각 현상을 일으키는데, 착각 현상이라는 것은 오관기(五管器)신경 또는 정신적 지각의 부분적 마취에 따라서 일어나는 현상인데 이는 술로 인해 발생하는 무서운 작용중의 하나라고 말한다. 술은 과거로부터 인류에게 심한 유혹을 주었고, 사람들은 술에 속아왔는데, 그것은 술은 수심과 근심을 없이하는 백약의장이라는 말들을 해가면서 독을 마시게 하여 몸을 해하며 수명을 단축시킨다고 말한다.

사회과학적으로 볼 때 술은 사람의 노동 능력을 떨어뜨리고, 피로감과 불쾌감을 주어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또한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함을 강조했다.¹³⁹⁾

6.2.3 사회변혁운동

송상석은 금주운동이 “소극적으로는 주정해독을 인생 생활에서 제거하여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다.”¹⁴⁰⁾라고 말한다. 이는 음주가 인간의 삶에서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부정적인 역할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불행을 증진시킨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는 1933년 당시 평양형무소의 수감자중 폭력사건의 80% 이상이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금주자의 평균수명은 43년 1개월이지만 음주자의 평균수명은 35년임을 밝히고 있으며,¹⁴¹⁾ 조선 내에서 술로 인해 1년에 11,097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다.¹⁴²⁾

그는 평양신학교 주최로 개최한 현상 금주 강연에서 금주운동의 목적에 대하여

139)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99-603.

140)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0.

14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2.

142)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4.

이렇게 말하고 있다. “금주운동의 주의(主義)와 목적은 불신자에게 금주선전을 하는 것보다도 기독교회가 금주운동을 마땅히 힘써야 하겠다.”¹⁴³⁾ 송상석은 교회가 금주운동을 함으로써 사회를 변혁하자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교회가 사회에 대하여 어떻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6.2.4 항일운동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분명히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일제는 금주·금연운동자체에 대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이는 일제의 정책이 어느 정도의 포용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송상석은 조선인의 한 사람으로서 항일의 마음이 있었음에는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금주·금연운동의 목적이 항일운동은 아니었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목적은 복음운동이었다. 특히,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조선에 실시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조선총독부로부터 거절당한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조선에 실시된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괄목할만한 현상이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배경이 있었다. 첫째는 일본의 금주·금연 동맹의 지지가 있었다는 것과, 둘째는 총독이 교체되는 시기였으며, 셋째는 일제가 ‘국가총동원법(國家總動員法)’을 실시하기 직전이었다. 이 시기에 송상석의 역할은 결정적이었다.

143)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0.

7. 종합과 평가

1920-30년대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그는 조선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 지 50여년이 되었고, 금주·금연운동을 시작한지도 10여년이 된 시점에서 복음전파와 금주·금연운동은 동근이지(同根異枝)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신국건설을 설계하는 동일한 뿌리에서 분업적으로 갈라져 나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는 성경의 기자들 모두가 신·구약성경을 통하여 금주·금연운동을 직·간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교회 역시 금주·금연운동을 말하지 않은 목사가 없음을 말한다. 가령 길선주목사, 김익두 목사를 비롯한 모든 조선의 목사들이 금주·금연에 대하여 말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음을 말한다.¹⁴⁴⁾

금주·금연운동과 복음전파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평가이다. 그는 신자들에 대해서는 금주·금연교육을 통하여 금주·금연운동을 펼쳤고, 비신자들에게는 캠페인적인 성격으로 접근했다.

송상석에 대한 괄목할 만한 업적은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조선에 실시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이다. 식민지배하에 있던 조선인이 일본의의를 움직인 것이다.

7.1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의 위치

1910년 이전에도 금주·금연에 대한 권고와 경계가 있었다. 초기선교사들은 술과 담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입장이었으나 1895년을 전후로 금주·금연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주론(戒酒論)을 펴나갔다.¹⁴⁵⁾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때는 1910년 이후부터 1938년까지이다. 1910년 이후,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분기점은 3.1운동이다. 3.1운동을 기점으로 금주·금연운동은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¹⁴⁶⁾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구세군과 감리교에서 먼저 시작했다. 1925년부터 금주·금연운동은 전

144)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8.

145)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168.

146) 1929년대는 일제가 조선에 대한 문화정치를 펼쳤기에 절제운동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제약은 두지 않았다.

국적인 조직을 갖추기 시작했고, 송상석은 1925년에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했다. 그는 전국조직을 갖추기 시작할 때부터 금주·금연운동에 몰입했다.

송상석은 조선에서 진행된 금주·금연운동의 후발주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1930년대 금주·금연운동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

7.2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소명

송상석은 금주·금연운동에 투신하여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이 조선에 실시되기까지 거친 여정을 보내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한국사회에 금주·금연운동이 절정을 이루었던 때는 1925년 즈음부터 1938년까지였다. 이 기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절제운동은 금주·금연운동이었다. 그리고 대표할만한 금주·금연운동조직은 1931년에 조직된 ‘조선기독교절제회’라고 볼 수 있다. 이 절제회는 1935년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조직하여 한국에 있는 미성년자들을 중독으로부터 구하는 것을 최고의 과제로 삼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의 핵심에 송상석이 있었다.

1929년 장로교와 감리교의 연합체 형태의 조직구조로 출범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기성동맹’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주도적으로 일한 사람이 송상석이다. 송상석은 이 연합체가 이듬해 1930년 불가항력적으로 해체되자, 동료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무명 좌수지를 스스로 절단했다. 5년 뒤 송상석은 또 다시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의 총무가 되어 활동한다. 그는 적극적으로 일본금주·금연 양대 동맹과의 외교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법률제정을 위하여 힘을 다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전략적이고 치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송상석이 금주·금연운동의 핵심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이 있었던 것이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곧 절제교육이라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는 「절제시보」를 창간하면서 절제교육에 집중했다. 그는 다양한 절제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였으며, 특히 청소년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이는 그의 금주·금연운동이 절제교육에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는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만들어 청소년들을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절제교육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에 그는 법안제정에 대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절단하는 열정을 보인 것이다.

이만열은 한국의 금주·금연운동에 대하여 평하기를 비록 금주·금연운동이 하나의 사회운동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는 대단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정규적인 학교교육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한국기독교 사회교육의 중요한 기능을 감당했다고 평가하고 있다.¹⁴⁷⁾

7.3 금주·금연운동에의 투신

해방 후 서구문물의 수용과정에서의 혼란과 기독교계내의 신학적 견해 차이로 금주·금연운동을 퇴진하자는 움직임으로 인해 주일학교 공과 내용에서 절제교육 부문을 삭제했다. 그러나 송상석은 그 후 1978년 9월 7일에 서울 YMCA에서 백낙준, 박형룡과 함께 다시 ‘한국기독교절제회’를 조직하고, 금주·금연운동 전개했다.¹⁴⁸⁾

송상석이 금주·금연운동에 혼신을 다해 투신한 기간은 1925-1938년까지 13년간이다. 이 기간에 그가 주로 힘을 썼던 것은 조선의 미성년자들이 음주와 흡연을 금지하게 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이다. 사실은 이것이 송상석이 일구어낸 가장 큰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일본 동경에서 출간되는 「금주신문」(1887년 창간)은 1978년 1월 1일자 기사에서 일본금주동맹 이사장(1938년 당시 총주사)인 오시오 소우지(小鹽完次)와 송상석의 교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이 신문은 송상석이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조선에 실시케 하기 위하여 10여회 이상 일본을 드나들며 일본국민금주동맹과 긴밀한 교류를 하고 있었으며, 일본금주동맹의 이사장 오시오 소우지 역시 송상석에 대하여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으며, 이들은 30년 이상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¹⁴⁹⁾

아쉬운 것은 해방 후의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중단되었다. 그것은 그가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었다. 이는 그가 1978년, 그의 나이 81세가 되어서도 다시금 ‘한국기독교절제회’를 조직했던 것에서 드러난다. 그가 금주·금연운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 했듯이 그가 고신교단의 핵심인물로서 해방 후부터 1978년에 이르기까지 교회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송상석이 교회당 재산권 분쟁의 한가운데 있었고, 고려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분쟁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20세기 한국의 금주·금연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다는

147)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77.

148) 이만열, 『한국기독교문화운동사』, 277.

149) 「禁酒新聞」第614号(1978. 1. 1).

송상석 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541.

것에 대하여는 한국의 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만열은 금주·금연운동은 기독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조선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나갔다고 말한다. 그는 일제가 한국의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한국인의 도덕적 타락을 조장하는 식민지적 상황에서, 더구나 1930년대가 국내에서 독립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기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 금주·금연운동은 일정하게 항일민족운동의 성격을 띠었다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는 이어서 이 운동에 가장 헌신적이었던 지도자의 하나로서 젊은 시절부터 이 운동에 투신한 송상석 목사를 들 수 있다고 평하고 있다.¹⁵⁰⁾

7.4 해방이후의 금주·금연운동

해방이후 금주·금연운동은 해방 이전과 같지 않았다. 그 원인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는 동기부여가 약해졌기 때문이다. 해방이전의 금주·금연운동은 항일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나 해방과 동시에 항일운동자체가 무의미하게 되었다. 둘째는 금주·금연운동을 했던 인사들이 교회재건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해방전 금주·금연운동은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전개되었다. 그러나 해방 후 교회지도자들은 교회재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붓고 있었기에 절제운동을 전개해나갈 여력이 없었다. 특히, 금주·금연운동을 주도하여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조선에 시행하는데 결정적 업적을 남긴 송상석 역시, 교회 재산권 분쟁으로 20여년간 지리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셋째는 한국전쟁의 발발이다. 한국전쟁을 전후로 한국사회는 대혼란기에 접어들었다. 전쟁 후 폐허가 된 한국사회는 또 다시 재건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송상석은 1978년 그의 나이 81세가 되어서 ‘조선기독교절제회’를 잇는 ‘한국기독교절제회’를 재건하게 된다. 그러나 송상석은 그해 소천하게 되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금주·금연운동은 다시 주춤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30년대 금주·금연운동의 결과물로 한국교회는 금주·금연이라는 좋은 전통을 물려주었다. 이는 문화변혁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18세기부터 금주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당시 미국과 영국에서 일

150) 이만열, 『한국기독교와 역사의식』, 344.

어났던 부흥운동의 결과였다. 즉, 복음에 대한 반응이었다.¹⁵¹⁾ 실제로 절제의 생활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일각에서는 금주와 금연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이의재고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건덕의 차원에서도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인 금주·금연은 지속적으로 계승되어야 한다.

7.5 금주·금연운동과 선교

한국 초기 선교사들은 의료, 교육, 사회개혁, 사회봉사 등을 통하여 조선민족에게 접근하였고, 조선민족은 이에 호응하고 있었다. 그리고 복음은 자연스럽게 조선민족에게 수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금주·금연운동은 사실 선교학적으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한계점이 있다. 그것은 금주운동이나 금연운동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복음을 수용할만한 접촉점을 찾기에는 괴리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음주와 흡연을 상습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금주와 금연을 권유한다면, 이들은 복음자체를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주·금연에 대한 비신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과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접근 방식을 구분해야 한다. 송상석은 그 구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기독교 신자들에 대해서는 성경적 금주·금연교육에 집중하고 있으며, 비신자들에게는 캠페인적인 성격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환경 속에서 항일 성격을 띤 금주·금연운동은 비신자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접촉점을 가지는데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151) 이상규,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178.

8. 결 론

일제는 수탈을 목적으로 조선인들에게 중독성 물질의 반입을 용인하거나 부추겼다. 대표적인 것은 술과 담배에 대한 무제한 반입이다. 아편에 대해서도 매우 관용적이었다.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조선인들의 정신은 혼미해져갔다. 자연스럽게 금주·금연운동은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절제교육에 중심을 둔 복음운동이었다. 송상석은 조선의 금주·금연운동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다. 비록 민족주의의 옷은 입고 있었지만 그 내면 속에는 복음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일제 강점기 때의 한국 기독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다. 뿐만 아니라 한국 민족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인물이다. 민족주의는 일제의 식민통치로 인한 조선인들의 요구이기도 했다. 즉, 송상석의 복음운동과 조선인들의 민족주의 운동의 조화라고 할 수 있다. 송상석은 목회자의 관점에서 음주와 흡연은 신자의 믿음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해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복음전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교회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러한 인식은 식민통치 속에 살았던 조선민족을 보호하기를 원했는데, 특히 조선의 청소년들을 음주와 흡연으로부터 구하기를 원했다. 여기에 송상석은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었다. 이러한 송상석의 헌신은 통치국인 일본의 의회를 움직였다.

송상석의 금주·금연운동은 한국교회사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적어도 그는 1920-30년대 절제운동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다. 송상석이 금주·금연운동의 아이콘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조선에 실시케 하기 위하여 수많은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식민지 조선이 통치국 일본을 상대한다는 것은 적잖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송상석은 통치국을 설득하여 ‘미성년자금주·금연법’을 조선에 시행하는 법령을 제정케 했다. 여기에는 일본국민 금주·금연동맹의 역할이 지대했다. 이는 송상석이 일본 국민 금주·금연동맹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상석의 행적은 아직도 깊이 연구되지 못했다. 이는 그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 국민들은 식민시대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 이들은 한국민족을 위해 자신을 불살랐던 사람들이기에 한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송상석 역시 이 반열에 들어와

야 마땅하다. 이는 조선 사람으로서 통치국인 일본을 움직여 미성년자들을 중독성 있는 물질로부터 건져 내었다는 것에 충분한 의미를 둘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송상석에 대한 공정한 평가이다.

송상석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어야 한다. 과거 식민지하에서 한국의 청소년들이 중독성 있는 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한국의 청소년들이 중독성 있는 물질에 노출되어 있어 그들의 육체와 정신이 망가져 가고 있다. 이들을 구원하는 길은 복음과 절제생활을 통해서이다. 송상석이 보여주었던 복음과 금주·금연운동이 성과를 거두었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러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참고문헌

- 국어국문학회,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2000.
- 김남식, 『한국기독교청년운동사』,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김용해, 『대한기독교침례회사』, 서울: 대한기독교 침례회, 1964.
- 다테노 아키라(오정환, 이정환 공역), 『그때 그 일본인들』, 서울: 도서출판 한길사, 2006.
- 민경배, 『한국교회의 사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8.
- ,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 박용규, 『한국기독교회사 2권』,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04.
- 손봉호, 조성표 편, 『한국사회의 발전과 기독교』,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12.
- 송상석, 『법정소송과 종교재판』, 서울: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남법통노회, 1976.
- ,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 서울: 성광문화사, 1979.
- 신재철, 『불의한자 앞에서 소송 하느냐』, 서울: 쿤란출판사, 1976.
- 오노시즈오(김산덕역), 『일본교회사』, 서울: 칼빈아카데미, 2012.
- 윌리엄 밀른(김홍만, 이스데반 공역), 『장원양우상론』,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2.
- 이덕주, 『이덕주 교수가 쉽게 쓴 한국교회이야기』, 서울, 신앙과지성사, 2011.
- 이만열,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6.
- , 『한국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서울, 두레시대, 1998.
- , 『한국기독교와 민족의식』, 서울: 지식 산업사, 1992.
- 이상규, 『부산 경남지방 기독교회의 선구자들』, 부산, 고신대학교 출판부, 2012.
- , 『부산지방 기독교 전래사』, 서울: 글마당, 2001.
- , 『한국교회 역사와 신학』,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 , 『한국교회사의 뒤안길』, 서울: 킹덤박스, 2015.
- , 『한상동과 그의 시대』, 서울: SFC, 2006.
- , 『해방전후 한국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5.

-----, 『헬라 로마적 상황에서의 기독교』, 서울: 한들출판사, 2006.

장동민, 『대화로 풀어보는 한국교회사 1권』,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9.

차옥송 편, 『기독교사 자료집』, 서울: 도서출판 고려한림원, 1993.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2권』, 서울: 한국기독교 역사연구회, 2015.

이상규, “1907년 평양대부흥의 역사와 의의”, 『제9회 한상동 기념강좌』, 부산: 고신대학교, 2006.

이승연, “1905년-1930년대 초 주조업 정책과 조선 주조업의 전개”, 『한국사론』 32(1994, 12), 69-132.

아펜젤러, “계주론”, 『조선그리스도인회보』, 1권32호(1897. 9. 8), 131.

『대한예수교장로회 제58회 총회회록』, 서울: 고신총회, 2008.

「禁酒新聞」 第614号(1978.1.1).

「기독신보」 1927. 12. 10.

「기독신보」 1930, 2, 22.

「기독신보」 1930. 4. 16.

「기독신보」 1932. 5. 25.

「동아일보」 1925. 5. 11.

「동아일보」 1935. 12. 14.

「동아일보」 1938. 4. 15.

「조선중앙일보」 1935. 12. 1.

Calvini, J. *Institvtionis Christiane Religionis*, IV.20.2.

Korea Mission Field, 1905-1923.

Palmer, S. *Korea and Christianity*, Seoul: Halyim Pub. 1967.

Paik, G. *The history of Protestant missions in Korea*, Seoul: Pyeng Yang: Union Christian College Press, 1929.

부록 1

송상석의 연혁

1897년 12월 20일, 마산에서 출생

1910년 마산 보통학교 졸업

1916년 마산간이농업학교 졸업

1920년 통영군 언량면 옥지도의 사립 원량학교 교원으로 부임

1920년 개종

1924년 진명학교로 옮겨 일하면서 동료교사였던 김난출과 결혼

1925년 김창준의 후원으로 금주·금연 운동을 시작

1925년 3월 20일, 송상석은 '절제운동서한지'를 제작하여 배포함으로 금주·금연운동을 전개하기 시작

1927년 황주에서 조직된 '주마정벌총사령부(酒魔征伐總司令部)'의 총사령관이 됨

1929년 4월, 미성년자 금주·금연 법을 제정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짐

1929년 4월 4일, 미성년자 금주·금연 법을 조선에 실시하는 운동을 개시하기 위하여 상경

1930년 5월 26일,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과의 면담예정이었으나 결렬됨

1930년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운동'을 추진하던 그룹이 해체됨

1930년 5월30일, 송상석은 다실 일어설 각오로 왼손 무명지를 끊는 단지혈맹을 함으로 동료들을 격려

1931년 평양신학교에 입학

1932년 1월, 전국을 순회하며 강연을 시작함

1932년 5월, '조선기독교여자절제회'에서 주최한 현상 논문에서 1등으로 입상

1932년 5월, 평양신학교에서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를 조직하고 조만식, 채필근을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총무가 됨

1932년 5월 5일,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가 조직됨

1932년 12월 16일, '조선기독교절제회'와 교계 및 일반사회유지들과 함께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조직

1933년 4월 1일, 기관지「절제시보」창간호를 출판, 주간으로 활동

1934년 평양신학교 제29회로 졸업

1934년 4월, 일본 요코하마에서 개최된 일본 국민 금주동맹 전국대회를 방문

1935년 12월 16일, ‘미성년자음주·흡연금지법실시촉성회’를 통하여 미성년자 금주·금연 법을 발의

1935년 12월에 평양에 본부를 둔 ‘조선기독교절제회’에서 송상석 총무를 경성에 파견

1936년 8월 29-30일, 동경에서 개최된 ‘동양금주대회’에 초청되어 조선의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실시 운동 연설을 함.

1936년 9월 1일, 일본금주·금연 양 동맹에서 송상석 목사를 맞아 위로와 장려회를 배설.

1936년 9월4일, 동경에 본소를 둔 중앙조선협회장 사카타니(阪谷) 남작에게 미성년자금주·금연법실시운동을 위하여 협력과 원조를 청원하였고 이를 수락 받음.

1937년 1월부터 6월 20일까지 ‘미성년자금주·금연법’ 실시 참고자료를 수집, 편집하여 총독부에 제출

1938년 3월 초에 내각 법제국으로 회부됨

1938년 3월 18일, 법제국 심의회를 통과하고 칙령안 수속을 정비하여 각의에 상정.

1938년 3월 18일, ‘미성년자금주·금연법안’이 각의를 무사히 통과

1938년 3월 26일, ‘미성년자금주·금연법안’이 칙령 145호로 공포됨

1938년 4월 4일에 미나미 지로 총독을 회견하고 조선에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을 실시하게 됨에 대한 감사의 사례를 함

1948년 11월 28일, 문창교회에 위임목사로 부임

1950년 12월 10일, 문창교회를 사임

1954년 5월 문창교회 부임

1970년 9월 6일, 문창교회와 분리하여 이전 (제일문창교회로 교회명 변경)

1971년 9월 30일, 고려학원 이사장 역임

1974년 12월 4일, 총회 특별 재판국에 의해 목사면직 됨

1975년 문창교회와의 법정소송 완료

1977년 11월 25일, 일본금주동맹 오시오 소우지(小鹽宗次)씨 부부 송상석을 방문

1978년 절제회(한국기독교절제회)를 재조직

1978년 소천

조선기독교절제회 설립취지문

해설 : 송상석은 ‘조선기독교절제회(1932)’ 조직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조선기독교 절제회는 조선 전체를 아우르는 1930년대 대표적인 절제회이다. 아래의 글은 ‘조선기독교절제회’를 조직하면서 발표한 설립취지문이다. 이 글은 송상석 편저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에 실려 있다.

암흑(晤黑)의 칠야(漆夜)를 불야광명(不夜光明)의 세계로 변하기 위하여 전등, 와사등을 발명하고 한냉(寒冷)의 엄동(嚴冬)을 불동온난(不凍溫暖)의 세계로 변하기 위하여 탄로(炭壇) 증기로를 창작한 것이 우리 인류다. 물질세계의 기기방면(機器方面)에는 이와 같은 고심고투(苦心苦鬪)의 계속정복과 용왕매진의 장족발전이 인류사회로 하여금 금일의 문화세계를 형성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세계의 인격방면(精神世界)으로 일반사회를 고찰할 것이면 암흑동결(晤黑凍結)의 방면인 죄악, 미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 말할 수 없다. 주류(酒類), 연초(煙草), 아편(鴉片), 창기(姑妓), 약질, 폐습 등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에 다대한 해독을 준다는 것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상하 현우(賢愚)가 공인(公認)하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근년(近年)에 와서 과학적 지식이 일취월장(日就月將)함을 따라 그런 독물들은 놀라지 아니 할 수 없으리 만치 흉포(凶暴)한 파괴성과 잔혹한 살육성을 가지고 생명재산을 약탈하되 무저항과 같이 자족할 줄 모르는 악마의 무기인 것을 더욱 명확하게 증명하여준다. 이런 독물들이 개인에게나 사회에나 한번 급습하면 열 번, 백 번, 천 번, 그냥 계속급습(繼續侵襲)하고 또한 한없이 번식증대(繁殖增大)하여 필경에는 건전한 대장부를 약한 불구자로, 부유한 가정을 빈궁한 걸인대로, 평화의 세계를 수라장면(修羅場面)으로 성결의 전당(殿堂)을 죄벌지옥으로 화하여 마는 것이다. 여러분이 이것을 부인할 자 그 누구냐.

이와 같은 악마의 작업, 죄벌의 시장을 정벌극복하기 위하여 담대하게 또는 강용(強湧)하게 “내가 하겠다”고 선봉대원으로 선 듯 나설 사람이 그 누구인가? 아-과학적으로 인식한 일이지마는 과학자들이 낙서지 아니하며 도덕적으로 단정된 일이지마는 도덕가들이 나서지 아니한다. 이 역시 악마의 유혹이오 범죄의 결과다. 아-

그러면 이것을 위하여 나설 사람은 아주 없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집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위선의 영리자(營利者)들이 상품을 매매하며 전양(錢兩)을 체환(替換)하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셨는가 여러분은 성서를 펴서 살펴볼지어다. 그는 확실히 사계(斯界)의 개척자(開拓者)시며 용장(勇將)이시다. 타인이 도탄에 빠지는 것을 보고 자기가 거기 빠진 것 같이 여기지 아니하면 군자의 배(輩)가 될 수 없을 것이요 타인의 죄악 중에서 신음(呻吟)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구제할 마음이 나지 아니하면 정의의 사(士)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기독교(基督)의 행한 일을 보고도 그대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기독교의 도(徒)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각대각국의 기독교도 각기 정세를 따라 금주회, 단연회 같은 것을 설립하여 혹(或)은 교풍회절제회(矯風會節制會) 같은 것을 조직하고 또 혹은 공창폐지 미신타파 같은 열렬한 운동을 일으키어 사회를 개선하기에 노력하는 것이다.

아-우리 조선의 기독교신자는 현금(現今) 그 수가 40만에 불하(不下)한다. 또 거의 그 전부가 금주단연과 그와 유사한 절제생활을 영위하는 자인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독선(獨善) 기신(其身) 타인(他人不關)의 냉혹한 태도(態度)를 가지고 빙빙과거(氷氷過去)하여 온 것이 또한 핑계 없는 사실이다. 아-우리 기독교신자(基督教信者)들이여 이 비진리(非眞理)의 심정, 이 비정의(非正義)의 행동을 언제까지나 계속하려하는가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향(向)하여 높은 목소리로 외치고 계시다. “나를 위하여 나아갈자 누구냐”하시는 기록한 말씀을 여러분은 듣지 못하는가 또 허다한 생명들은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슬픈 목소리로 부르짖고 있다. “마게도니아로와서 죽어가는 우리를 도와주소서”하는 가련한 청구를 여러분은 받지 아니하는가 여러분 중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대답할 사람이 그 누구인가 자아의 영속(永遠)한 인격건설을 위하여 타인의 가련한 생명구제를 위하여 사회의 일반복지증진을 위(爲)하여 인류의 공동(共同理想) 실현 위하여 진신(眞神)의 무한한 존귀광영(尊貴光榮)을 위하여 예수께로 나아올 자가 여러분 중에 누구냐, 아 신자여 개흥호래(蓋興乎來)리오.

한국기독교 절제회 재건(韓國基督教節制會再建)

해설 : 송상석은 1977년 8월 14일 일본 동경에서 일본금주동맹을 이끌었던 오시오 소우지(小鹽完次)를 방문한다. 이는 30년만의 재회였다. 이 방문을 계기로 오시오 소우지는 1977년 11월25일 송상석을 답방한다. 이 두 사람의 재회는 다시금 금주·금연운동에 대한 열정을 일으키게 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송상석은 다시금 절제회를 재건하는데 힘을 쏟는다. 그 결과로 ‘한국기독교절제회(1932)’라는 단체를 조직하게 되었는데, 아래의 글은 송상석이 백낙준, 박형룡과 함께 한국기독교 절제회 조직을 재건하면서 그 취지와 임원단들을 소개 하고 있다, 이 글은 그의 편지인 『한국절제교육연구사료집』에 실려 있다.

교계 원로목사들의 발기로 1978년 9월 7일 오후5시 시내 Y.M.C.A. 친교실에서 한국기독교절제회 재건창립총회가 성황리에 모여 아래와 같이 교계 원로목사를 고문으로 추대하고 실행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각 교단에 건의하여 해방 후 중단 된 주일공과에 절제공과를 삽입하여 초교파적으로 절제운동을 펴나가는데 앞장서기로 하는 원칙을 세웠으며, 미성년자 음주·흡연을 법으로 금지토록 현재의 아동보호법을 개정해 줄 것을 관계당국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특히 이번재건창립총회의 산파역할을 한 송상석목사(본회 명예회장)는 앞으로의 절제운동을 위해 자신의 평생을 바쳐 수집한 사료를 정리하여 “절제교육연구사료집”을 편찬 출판케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고문 - 김명선, 김응조, 김종호, 노진현, 박형룡, 백낙준, 송상석, 이환신, 한경직

임원 - 명예회장 : 송상석 목사, 회장 : 강신명 목사, 총무 : 변순재 목사, 서기겸 회계 : 현호택 장로

실행위원 - 강신명, 강용한, 김종대, 김해득, 나원용, 변순재, 조덕현, 심광석, 이봉구, 김재동, 조덕현, 최 훈, 현호택, 황성수.

「절제시보」의 취지와 강령

해설: 송상석은 1932년 5월, 평양신학교에서 ‘조선기독교절제운동회’를 조직하고 조만식, 채필근을 공동회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총무가 되었다. 이듬해 1933년 「절제시보」를 창간하고 주간(主幹)으로 활동하면서 「절제시보」의 취지와 강령을 제시한다. 아래는 「절제시보」 창간호에 실린 송상석의 글이다.

「절제시보」의 출생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조선의 절제운동이 움트기 시작하여 십유성상(十有星霜)에 달하였으나 통제(統制)하며 지도할만한 기관지(機關紙)가 없었던 것을 유감(遺憾)으로 생각하던 차에 다수동지의 성원(聲援)과 모특지가(某特志家)의 후원과 열심으로 본보발행의 첫 소리를 외치게 되었다.

실정으로 말하면 절제운동기관지를 계획한지도 오래 전부터이며 출세(出世)의 발길을 세간에 내밀어 보려고 다리를 들석거려 본적도 한두번이 아니었으나, 주위(周圍)사정은 얼른 허용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저간(這間)에 지령장수(紙齡長壽)를 확보할 진용(陣容)을 정비(整備)하기에 몰두하였으나 이제는 스타트를 당행하고 절제운동 전선에 나서게 되었다.

한번 발걸음이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씩씩하게 달려가야겠다. 본지의 주의 정신은 다음 세 가지의 강령(綱領) 위에 입각(立脚)하여있다.

1. 개인적으로 본 극기 자제생활

이 말은 자기가 자기를 제어하여 이기는 생활이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말한바 “육신의 생각은 죽은 것이요 성신의 생각은 사는 것과 평안함이니라”.(롬8:6), “대개 너희가 육신을 좇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오직 성신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니라”(롬8:13)한 말씀이 곧 개성(個性)의 절제생활을 가르친 것이다. 세간에 신도와 정의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이는 다 극기자제생활을 한 용사들이다.

인격을 세우며, 지위를 향상하며, 평화를 보장하며 심령을 고결케 하는 등 인간 행복은 다 극기자제생활에서 얻게 된다.

2. 사회적으로 본 사회정화

창조의 신이 인생을 거룩함으로 지으시고, 행복과 평화스러운 세상에서 살게 하셨지만 불행히도 죄악의 모독(冒毒)으로 사람의 심령은 황폐하여지고 인생사회는 흑암의 장막에 에워 쌓이게 되었다.

인생사회에 죄악의 가시가 심령을 찔러서 만신창(滿身瘡)을 내었고 양심의 발에는 악마의 작난(作亂)으로 가라지는 무력무력 자라고 있으며, 알곡은 가시덤불 그늘 밑에서 움츠리고 앉아서 비애(悲哀)의 눈물을 일삼고 있는 인생이 주, 초, 아편, 공창, 광신, 사치, 투기업, 사행심등과 일반 부도덕이다.

3. 종교적으로 본 신앙의 실재화

신앙생활과 실생활 조화를 상응케하여 신앙생활을 칭탁(稱託)하여 현실생활을 무시하는 경향(傾向)이나 또는 현실생활에 편중하여 신앙의 신묘(神妙)를 부인하는 등의 폐단을 막아서 신앙의 행함을 같이 세우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신앙을 실재화하는 동시에 실생활을 복음진리 토대위에 세우자는 것이다.

성경에 이르기를 “만일 사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 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약2:4),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홀로 있어 죽은 것이라 혹이 말하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너의 행함은 고사하고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또한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약2:17-18)

이 성경에서 신앙과 실생활의 조화작용의 원리를 찾아서 그 법칙대로만 산다고 하면 성도로서 개인의 사생활이나 공생활이나 단체생활에 모순이 없을 것이며, 교회 내 추태를 연출(演出)하여 외인의 구경거리가 되는 일도 없을 것이다.

결 언

절제생활에 있어서 개인적이나 사회적이나 종교적인 것을 물론하고 절제운동에 대의를 말하자면 소극적으로는 생의 참된 목적에 위반되는 모든 충동을 제거하여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생의 참된 목적을 성취함에 유조(有助)한 모든 충동을 정당하게 지도하는 것을 가르쳐서 절제생활이라고 한다.

미성년자의 음주·흡연 금지법 실시에 이르기까지

해설: 이 글은 1938년 4월 20일 「절제시보」에 게재된 내용으로, 송상석이 ‘미성년자금주·금연법안’이 각의를 통과하여 4월1일부로 조선에 실시된 후, 자신의 소감을 피력한 글이다.

사람치고는 누구를 물론하고 사명감을 누리지 않는 사람은 없을 줄 압니다. 생각건대 이것이 인류의 공통성인지는 몰으나 내게도 여러 가지 충동이 가슴을 두다려 준 적이 한두가지가 아니었으나 심령깊은 자리에 까지는 올려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감각이 둔한 나지마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것은 죄악에 빠져있는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는 종을 삼으시기 위한 것임을 각오한 동시에 일만 죄악을 비저내여 하나님의 귀한자녀들이 마귀의 자식이 되게 하는 주마와 연독을 인류사회에서 배제하는 운동에 힘써야 하겠다는 것이 나에게 준 강한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한갓 이상뿐이요 실제성을 발견할 만한 아무 도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내다보면 망연한 것과 답답한 것이 가슴을 눌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낙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주금연 운동에 실제성 있는 타개책을 강구하기에 게으르지 아니하였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던 차에 한줄기 소망이 나의 머리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곧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실시운동이었습니다. 이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은 금주금연 운동에 기본이 되는 까닭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법을 조선에 실시케하려고 시골서 훈장일 보던 것도 내던지고 집간이나 있던 것을 팔아 동여가지고 서울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때에 동리지 동회형에게 돈백원원조 받은 것은 잊을내야 잊을수가 없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보니 예상과는 판판입니다. 세상이 악해서 그런지 내 태도가 선명치 못한 까닭인지는 모르나 별별한 의혹이 싸돌게 되어 나의 뼈속을 아프게 한 때도 많았고, 옷깃을 눈물에 젖게한 때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 의혹이라는 것은 세끼 밥먹고 돈 생기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무삼비밀이 있다는 억척이었습니다.

별별난관을 돌파하고 동지를 규합하여 본격적 운동이 전개 되려고 하는 지음에 호사다마라는 격으로 재등총독 당시에 교섭운동은 파란 곡절이 중첩되어 동지들은 사면초가를 부르게 되고 보니 사업에 실패를 당한 자로서 고독과 비애에 쌓인 나는 파산 선고까지 받게되어 머리 돌곳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지라도 사업을 부활시키기 위하여 나의 왼손 무명지를 끊어서 피로써 동지들을 격려하며 하기 어려운 학우들의 수모에 심기저상을 받아 활기없는 인육생활을 하였으나 신학교 교수 곽안련 박사의 뜻깊은 찬동과 사업비 조달에 힘써준 것은 나약한 나를 부지런히 편달하여 주었습니다.

신학을 그럭저럭 마치고 교회를 담임하여 일을 보면서도 이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실시운동을 계속하여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운동을 계속한 까닭에 시운이 성숙함에 따라서 이 법안은 금년 3월26일에 칙령 제145호로 공포되어 4월1일부로 실시하게 됨을 보게 되었고 4월4일에는 남총독에게 감사한 인사를 하였고 또 4월 18일에는 축하회식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운동내용에 있어서 좀 더 상세한 말을 하고 싶어나 혹 어폐가 생길가 하여서 이것만으로 줄여서 말하고 말지마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묶을 단을 추수하리라는 성경교훈이 내게도 적용된 것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으나 아직 완전한 추수를 하였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성년자 금주·금연법실시운동은 일단락 지었으나 준법교육운동을 철저히 하여서 미성년자들이 주독과 연독에 물들지 않도록 당국과의 협력으로 교육운동을 충분히 하여야만 하겠는데 여기에는 별별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는 사람이요 둘째는 돈이요 셋째는 열심과 노력이올시다. 나의 굳은 결심을 호소하여 보았으나 이는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는 소화5년 5월 30일이었습니다.

이지경이 되고 보니 심약한 안해는 머리를 싸매고 구들목에 쓰러져 있고 아이들은 활기를 일코 부모들의 동정만 살피고 배고픈 얼굴이 창백색으로 화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정은 이뿐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눈에서 떨어지는 뜨거운 눈물이 품에 안기여 깊이 잠들고 있는 셋째아이 영숙이 얼굴을 적시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이 참담하고도 어색한 것이 나를 위협하지마는 나는 낙심하지 않고 때 오기를 기다리고 소화5년 10월에 서울을 등지고 황해도 황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

일을 보면서 동리지 동회형의 도움으로 평양신학을 하면서 미성년자 금주·금연법 운동을 계속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또한 별의별 의혹이 나를 덮쳐서 넘겨뜨리고 하였읍으로 나는 남모르게 눈물이 이불 밑에서 방바닥을 축인때도 많았고, 어떤 학생의 손을 잡고 억울한 울음을 운 때도 있었고 교회속화방지를 위한 절제운동을 기피하는 분은 부절제 생활을 은근히 용납하므로 불신앙하게 되는 교회를 위하여 재고하여 주기를 바라며 붓을 놓는다.

아! 송상석씨

해설: 이 글은 1977년 8월 송상석이 일본금주동맹 이사장(1938년 당시 총주사) 오시오 소우지(小鹽完次)를 만나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이미 하네다(羽田)공항에 환영 나와 있는 오시오 소우지와 상봉했던 정황을 동경에서 발행하는 「금주신문」의 기자가 기사화한 내용이다.

노스웨스트 6편이 8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정시에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다. 타랩을 타고 내리는 파나마 모자를 쓴 신사는 마산시 문창교회의 목사 송상석씨였다. 환영(歡迎)나와 기다리고 있던 일본금주동맹 오시오 소우지(小鹽完次)씨와 끌어안으면서 굳게 악수했다. 30년만의 재회였다. 별기한 칙령에 의한 법령이 조선에 시행되기까지 이르게 된 미성년자 흡연, 음주, 금지법은 그 실에 있어 송상석씨의 노력의 대가(代價)로 된 것이다. 송씨의 열의에 이끌리어 일본 금주동맹의 총주사(總主事)이었던 오시오 소우지(小鹽完次)씨도 뒤를 밀어 분주진력(奔走盡力)했다. 이와 같이 되기까지에는 역시 송씨가 있었다. 도일을 한 두번으로 된 것이 아니었고, 수년간의 일인데, 어떤 해는 10여회 도동(渡東)했다. 그 끝으로 마침내 이 법령은 조선에 실시하게 되었다.

지체할 것 없이 뭐라고 해도 조선의 청소년을 술에서 구해내는 대는 구테여 일본의 본토 뿐 만아니라 이 미성년자 금주법을 조선에도 시행해 달라는 일생 현명(懸命)으로 진정, 청원, 건의, 참정권 유무에 구애(拘碍)를 받지 않고, 송씨의 열정은 마침내 일본정부당국을 움직이게 된 것은 당연한 이(理)라 할 수 있다. 송씨는 8월 26일 필라델피아시 근교에서 열리는 국제 기독교 대회 참석차의 여행 도정이었는데, 귀도(歸途) 8월 하순에는 재차 동경에 들러 구교(舊交)를 두텁게 하겠다고 했다. 금후 한일 금주운동의 제휴(提携) 협력(協力)에 큰 꿈을 안겨주었다.

A Study of Rev. S. S. Song'

Antialcohol & Smoking Movement

Seong Keun Yu

Department of Theology
Kos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on The Rev. Sang. Seok. Song who has led an antialcohol & smoking movement 1920 and 1930's. Rev. Song's antialcohol & smoking movement has two particular characters: 1) it is evangelical, and 2) it is an protestant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in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vangelism, antialcohol & smoking movement is not a social campaign, but the proper response of the Christian community. In his thought, the life of self-control with the antialcohol and smoking is nothing but an natural behaviour of those who accepted the gospel. Therefore, with the religious education on the self-control, he wanted to remind of and strenthen the Christian identity of the lait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testant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he attempted to legislate and execute the law of the adolescent's antialcohol and smoking. Japanese instigated the alcohol and smoking. The aim of such movement of Japanese is not only to confuse and deteriorate the mind of people in Chosun with the toxic substance, but also to break down the economy of Chosun by creating the excessive tax. In fact, it is true that Rev. Song's motivation of executing the law of the adolescent's antialcohol and smoking is to promote the evangelism rather than protestant against the Japaneses invasion. Nonetheless, this legislation gained the dimension of the protestant

against the Japanese invasion.

Rev. Song has devoted his life for the execution of the law of the adolescent's antialcohol and smoking. He was struggled to legislate that law for nine years from 1929-1938. Finally, this law was accepted by the assembly of Japanese on Mar. 22, 1938, and began to be excuted from Apr. 01, 1938. Until this law was legislated, Rev. Song experienced many troubles. In order to encourage the co-workers and people, he cut off the fourth finger of his left hand. Due to the financial deficiency, his family suffered a lot of problems. However, he did not yield to the sufferings and furthermore visited Japanese several times to persuade the alliance of the antialcohol and smoking. In the meanwhile, he began to have the personal fellowship with Oshio Souji, the representative of the antialcohol in Japanese, and Okada Michikazu, the representative of the non-smoking movement in Japanese. In particular, Oshio Souji, the representative of the antialcohol in Japanese cordially helped Rev. Song and supported him in many areas. These two alliances in Japanese has brought the substantial influence upon the assembly of Japanese and finally this created the crucial factor for the legislation of the law of the adolescent's antialcohol and smoking.

Rev. Song became and served as the general manager of the alliance of the antialcohol and smoking in Korea. He was the person who organized and executed the essential part of the work in this alliance. This study will argue that Rev. Song is the representative who led the movement of the antialcohol and smoking in the church and society in Korean during 1930's.